

27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755.11 (-1.98)	911.25 (-4.84)
금리 (연이자율)	환율 (원/달러)
3.288 (-0.013)	1348.70 (+9.20)



기아 광명 EVO 플랜트를 둘러보고 있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현대차그룹

재계, 초격차 확보 속도 낸다

정의선 “사람이 미래” 8만명 채용 68조 투자

현대차그룹, 3년간 고용·투자계획 차세대 모빌리티 사업 확대 집중 GBC 인허가면 9200명 신규고용

등 차세대 모빌리티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대한민국과 서울을 상징하는 대형 랜드마크 및 미래사업 테스트베드로 조성중인 현대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 대한 대규모 투자 및 채용도 예고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월, 50층대 타워 2개동과 저층 4개동 등 총 6개동으로 하는 GBC 설계 변경안을 서울시에 제출한 상태다.

인허가 절차가 속도를 내면 투자와 고용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도시행정학회는 GBC 프로젝트에 대해 ▲생산 유발 효과 265조원 ▲고용유발 효과 122만명 ▲세수증가 1조5000억원 등의 경제효과를 추산한 바 있다. 통상적인 인허가 기간을 감안해 서울시가 내년 하반기 중 설계 변경안의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면 건설 본격화로 GBC 프로젝트에서만 2026년까지 약 4조6000억원 투자 및 9200명의 신규 고용이 이뤄진다. 2030년까지는 총 19조5000억원 투자, 누적 기준 5만6000명가량의 고용이 창출된다.

현대차그룹차원의 장기적 고용·투자 계획 발표는 이례적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국내의 대규모 고용 창출과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한국을 중심으로 미래 사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다양한 신사업은 물론 기존 핵심사업 분야에서도 차별화된 기술과 제품으로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주요 그룹사 주가가 역대 최고가에 근접한 상황에서 최근 주주총회를 통해 주주들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현대차그룹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청사진 제시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양성준 기자 ysw@metroseoul.co.kr

여야, 민생·경제·미래공약 대결 본격화

오늘부터 총선 공식 선거운동 확산장차·SNS 등 통해 지지 호소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8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254명의 지역구 국회의원과 46명의 비례대표 의원에게 대한민국의 ‘민생·경제·미래’를 이끌어 가야 하는 중책이 맡겨질 예정이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3월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9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6면〉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 붙이고 선거공보를 발송할 수 있으며, 후보자는 선거구 안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을 펼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산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장비는 소리 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2주 앞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선거벽보를 확인하고 있다. /뉴스1

력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 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후보자들은 문자·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자동정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후보자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광고에는 광고근거, 광고주명과 ‘선거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유권자들은 선거 당일인 4월 10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

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그러나 누구라도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또,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 사실이 적시된 글 등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위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 선거구 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정비사각지대 용적률·층수 등 규제 푼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지원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수익성 개선 공공기여 부담 15%서 10%로 낮춰

서울시가 고물가·고금리로 위축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도로 접도 요건 등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공공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27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시는 개발 이익이 적은 지역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현재 10~20% 수준인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리기로 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게 기존 세대수·지가·과밀 정도 등을 보정하기 위한 계수이고, 허용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개발을 통해 정해지는 인센티브 용적률이다. 예컨대 ‘기준 용적률 210%에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27일 서울시 중구 시청에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허용 용적률 20%’인 3종 지역에 보정계수를 최대(2)로 넣으면, 허용 용적률이 40%로 올라 분양주택이 최대 10%p(분양 275%·임대 25%→분양 285%·임대 15%) 증가해 사업성이 높아진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강남을 제외한 재건축 지역 대부분이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 복합개발이 필요한 곳은 용도지역을 상향한다. 지하철 승강장으로부터 약 350m 이내에 있는 역세권은 전락용도시설(임대주택·노인복지시설·공원 등)을 설치하면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해 줄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일률적으로 역세권이면 준주거지역으로 다 종 상향을 해준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도시계획 위계를 고려해 복합개발이 가능한 곳을 위주로 우선적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과밀단지의 현황용적률(현재건축물 대장상 기재된 용적률)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2004년 중 세분화 이전의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조성된 현행 조례나 허용 용적률을 초과, 사업성이 낮아 정비사업 기회를 얻지 못했던 지역의 현황 용적률을 인정하고 법적 상한 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 용적률을 부여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2면에 계속) /김현정 기자 hjk1@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대통령실 “필수의료회계 신설 등 과감히 투자... 의대정원 배정은 완료”
▲ 의협 비대위 “尹, 전공의 만나 협의하길” /사진 뉴스1

▲ 윤 “중기·소상공인 금융지원, 과도할 정도로 빨리 집행” 지시
▲ “비례 돌풍” 조국당 호남 지지 어디까지



▲ 한동훈, 가락시장서 4·10 총선 출정식... 물가동향 점검 /사진 뉴스1
▲ 이재명, 충주·청주 등 충북 지원 유세... 野비례정당과 합동 선대위 회의도

LG, 5년간 100조 국내투입... “올해 차별적 고객가치 매진”

정기주총서 중장기 전략 발표

구광모 회장, 사내이사에 재선임 AI·바이오·배터리·자동차 부품 등 성장분야에 국내 투자액 50%투입 “사업전반 본원적 경쟁력 강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과 낼 것”



LG그룹이 오는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약 100조원을 국내에 투자한다. 인공지능(AI)과 바이오, 클린테크와 같은 미래 기술과 배터리, 자동차 부품,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성장 분야에 50조원 가량을 투자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LG그룹은 27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제62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 같은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LG의 글로벌 총 투자 규모의

65%에 해당한다.

LG는 AI, 바이오, 클린테크와 같은 미래 기술과 배터리, 자동차 부품,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성장 분야에 국내 투자액의 50%를 투자해 미래 성장 전략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연구개발(R&D) 분야에만 50조원 이상을 투자해 국내를 첨단 연구 핵심 기지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LG 트윈타워 전경. /뉴스시스

권봉석 ㈜LG 부회장이 대독한 영업보고서 인사말을 통해 “LG는 저성장과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기 극복을 넘어 그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미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 회장은 “2024년은 경기 둔화와 지

정확 리스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AI의 보편화·일상화, 탈탄소 전환 등 산업의 변곡점들이 뚜렷해지면서 글로벌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올 한해 ‘차별적 고객 가치’와 ‘사업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주력 사업은 전후방 산업의 변화를 면밀히 살피며, 사업 전반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과를 내는 단단한 사업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장 사업은 고객과 시장이 요구하는 핵심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해 주력 사업화하고, 미래 사업은 AI, 바이오, 클린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미래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키워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LG그룹은 ‘고객 가치’와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하고 있다.

한편, 구 회장은 이날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LG그룹은 구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과 함께 ▲제62기 재무제표 승인 건 ▲정관 변경 승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을 결의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

Your True ESG Partner
세상에 행복을 **가** 놓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증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뒤통수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SK하이닉스, 美에 5.3조 투자 대규모 HBM패키징 공장 건설

美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2028년 완공... 일자리 1000개 예상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파예트 등을 최첨단 칩 패키징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로 탐색 중이며 거액을 투자할 예정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26일(현지시간)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에 40억 달러(한화 5조 3000억원)를 투자해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며 2028년 가동을 목표로 한다고 보도했다.

WSJ는 이번 SK하이닉스의 투자가 연방과 주 정부 세금 혜택 등 지원을 받을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약 800~1000개 가량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해당 지역 인근에는 미국 최고 수준의 반도체·마이크로 전자공학 프

그램을 운영 중인 퍼듀대학교가 있어 시너지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SK하이닉스의 최첨단 칩 패키징 시설은 현 계획을 기준으로 볼 때 미국 최초의 대규모 HBM 패키징 시설이 될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해외 반도체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미국 칩 법(US Chips Act)을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SK하이닉스 또한 오는 4월 12일까지 최첨단 칩 패키징 시설 건설을 위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세미아널리스트스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메모리 기기비트 트 기준으로 HBM 시장의 약 73%를 점유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도로 접도요건 완화... 중곡동·묵동 등 혜택

>> 1면 ‘정비사각지대 용적률’서 계속

공공기여 부담도 된다. 시는 1종→2종, 3종→준주거로 상향시 당초 15%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를 강남·북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10%로 낮춘다. 또 시는 공공임대주택 등 지역필요시설 또는 전략육성시설에 한해 상한 용적률 산식의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를 종전 0.7에서 1.0으로 올려 건축물을 내놓았을 때 공공기여를 더 많이 인정해 주기로 했다.

공공 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도로 접도 요건이 6m 미만으로 완화된다. 당초에는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야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판단해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다. 1970년대 토지구획 정비사업으로 주택단지가 형성된 광

진구 중곡동, 중랑구 중화동·묵동 등이 여기에 해당해 재개발시 혜택을 볼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 관계자는 “4m 도로면 골목길에 차량 1대만 있어도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이 불가해 6m로 완화했다”며 “이 경우 서울시내 재개발 가능 구역이 484만㎡에서 1190만㎡로 약 2.46배 증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고도·경관지구에 묶여 건축물을 높이 올릴 수 없었던 산자락의 높이 규제도 풀다. 경관지구는 현재 12m→20m로, 고도지구는 20m→45m 이상으로 완화해 산자락 저층 주거지도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손질했다고 시는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hjk@

쿠팡, 3년간 물류 인프라에 3조... 전국 ‘로켓배송’ 시대 연다

김천 풀필먼트센터 건립 등 추진 내년부터 로켓배송 지역 순차 확대 와우회원, '5無' 등 혜택 강화



쿠팡 배송 차량

/쿠팡

쿠팡이 전국 5000만 인구가 주문 하루만에 식료품과 생필품을 무료배송 받는 시대 개막을 위해 가속 페달을 밟는다.

쿠팡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3조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27일 밝혔다. 신규 풀필먼트센터(FC) 확장과 첨단 자동화 기술 도입, 배송 네트워크 고도화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좁은 '쿠세권(로켓배송이 가능한 지역)'이 지방 고객들의 삶의 질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 거주환경의 매력도를 높여 지방 인구소멸을 막는 핵심 필수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오는 2026년까지 경상북도 김천, 충청북도 제천, 부산, 경기도 이천, 충청남도 천안, 대전, 광주, 울산 등 8곳 이상 지역에 신규 풀필먼트센터(FC) 운영을 위한 신규 착공과 설비투자를 추진한다. 광주와 대전은 올해 물류시설 투자를 마무리하고 운영을 시작하면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과 이천 FC는 올 2분기 착공 예정이며, 김천 FC는 3분기 착공 예정이다. 충북 제천 FC는 올 4분기 착공 계획으로 앞으로 순차적으로 신규 FC 투자를 확대할 전망이다.

이같은 투자 확대를 통해 쿠팡은 전국에 로켓배송 지역을 순차적으로 늘려 2027년까지 사실상 '전국 인구 100% 무료 로켓배송'을 목표로 한다.

현재 쿠팡은 전국 시군구 260곳 중 182곳(70%)에 로켓배송을 시행 중이다. 내년부터 쿠세권이 점차 확대되면

서 2027년부터는 약 230여개 시군구에서 로켓배송이 가능할 전망이다.

쿠팡의 무료 로켓배송이 확대될 지역 대부분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전체 89곳)들이다.

대표적으로 경북 봉화, 전남 고흥·보성, 경북 의성·영양·청송, 경남 합천 등

고령화(65세 이상) 비중이 40%가 넘는 지역들에 로켓배송이 도입된다.

지방 소멸 지역은 상당수 생필품·식료품 구하기가 불편한 '장보기 사막'으로 쿠세권 확대와 투자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예로 폐광촌인 강원 삼척 도계읍은 지역민들이 대형마트가 없어 30분 이상 차를 타고 장을 보러 나갔지만, 지난해 중순 로켓배송 시행 이후 한달 5000건 이상 주문이 몰리며 지역에 활력이 돌고 있다.

신규 FC와 배송망 확대 등을 통한 고용도 크게 늘면서 서울·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층이 다시 지방으로 유입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쿠팡의 무료 로켓배송망이 확대되면서 지방의 와우 멤버십 가입자들도 쉽고 편하게 장을 보고 불필요한 추가 배송료와 이동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무료 배송·배달·반품·직구와 쿠팡플레이 무료시청 등 '5무(無)'가 가능한 와우 멤버십 혜택도 확대한다. 지난해 무료 배송과 쿠팡플레이 콘텐츠, 상품 할인에 4조원 가량의 고객 절약 혜택을 제공했다. 쿠팡은 최근 배달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쿠팡이츠 '무제한 무료배달'이라는 파격적인 서비스를 더 하면서 와우회원 '배달비 0원 시대'를 열었다.

이 같은 쿠팡의 계획에 대해 강형구 한양대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쿠팡의 쿠세권 확대는 소비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막대한 신규 고용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지방 식료품 사막의 무료 로켓배송 활성화는 고령화와 저출산 직격탄을 맞은 지역의 거주 매력도를 높여 지역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정부, 특화단지 적기 조성 총력 “용인 국가산단 예타면제 추진”

5차 국가첨단전략산위원회

포항·구미 등 특화단지 439억 투입 4대 첨단전략사업 R&D 예산 확대

정부가 대규모 민간투자가 계획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적기 조성을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선다. 올해 10조원 규모 용인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포항·구미 등 특화단지에 439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7월 지정한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종합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2047년까지 681조원 규모 민간투자 계획에 맞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적기 조성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국비를 통한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구축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2023년 용인·평택 특화단지에 국비 1000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원을 지원하고, 10조원 이상의 용인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등을 추진한다.

기반시설의 국비지원 건수 제한(2건) 기준을 폐지하고, 투자 규모와 지역을 기준으로 총 사업비 중 국비 지원 비율을 최대 10%포인트까지 상향하는 등 국비 지원기준도 마련한다.

특화단지 인근에 위치한 지자체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인·허가 등 절차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자체간 재정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도 신설한다.

경쟁국의 투자 보조금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현 투자 인센티브 지원 외에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도 지속 검토하기로 했다.

특화단지 내 첨단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올해 45억원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올해 대규모 연구개발을 기획해 예타 면제 또는 예타 패스트트랙 등 관련 절차의 조기 이행도 추진한다.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900억원의 '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각종 연구개발 사업도 우대할 예정이다.

특정 연구개발 성과가 다른 특화단지에서도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특화단지 간 연계 연구개발 지원 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별 특화단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포항 염수처리 지하관로 구축과 새만금 염수 처리에 필요한 기준을 신설하고, 용인 일반산단의 추가 용수 확보 문제, 청주 송전선로 이중화 지원 등은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4대 국가첨단전략사업에 대한 올해 연구개발 예산을 전년대비 10% 확대하고, 올해 4월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개를 추가 선정하는 한편, 이차전지 3개, 디스플레이 1개, 바이오 1개 등 신규 특성화대학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롯데하이마트 창립기념 하이메이드 특별 행사 BEST 모델 기획전

행사기간: 4월 1일 ~ 4월 14일

“롯데하이마트가 만든 합리적인 가격과 믿을 수 있는 상품”

하이메이드 (도어 냉장고) (61L)
HFF-H10AF332
배이지 살균 강화글라스 세미트윈
판매가 1,429,000원

하이메이드 (도어 냉장고) (47L)
HFR-SM70SM
패널 디자인 4도어 저소음 고효율 모델
창립기념특가

하이메이드 (도어 냉장고) (61L)
HFF-H10AF332
배이지 살균 강화글라스 세미트윈
판매가 1,429,000원

하이메이드 (도어 냉장고) (100L)
HF-CD100MHW
3가지 모드(냉장/냉동/급속) 연직 온도조절
판매가 199,000원

하이메이드 (도어 냉장고) (20L)
HMA-M20B
모던 디자인 컴팩트 사이즈 (20L)
판매가 79,900원

하이메이드 (도어 냉장고) (6L)
H100AF-H10000
자유면 랩렛 배너 6L 대용량 사이즈
창립기념특가

하이메이드 (도어 냉장고) (18.7m)
HCA-G09W
초정전 인버터 기술
취침 모드 세팅 제어
창립기념특가

하이메이드 (도어 냉장고) (35cm)
HM-CF124
서클레이터랑 선풍기
판매가 39,900원

하이메이드 (도어 냉장고) (35cm)
HM-XB000(G)BODY
4D인체메사지
헬스도트레이닝 (2가지 자동모드)
창립기념특가

하이메이드 (도어 냉장고) (24K PA 흡입력 2kg 초경량 핸들링 13종급 해파필터)
HV-NS250V
판매가 119,000원

하이메이드 (도어 냉장고) (무선 청소기 (핸디 전용))
HV-JH4G
12,000 PA 흡입력 13종급 해파필터
판매가 119,000원

HIMADE Made by 롯데하이마트

※가격은 당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국힘의 '험지' 초록불 켜질까... 민주 '우세 12곳·초접전 4곳'

총선 서울 판세 분석

①한강 북쪽은 누가 유리할까

22개 지역구 중 민주당 우세 多
21대 총선서도 민주당 싹쓸이
“국힘 약재 지나가면 기세 올릴 것”

4·10 총선이 14일 남은 27일 현재, 정 치권은 최대 격전지로 서울을 꼽는다. 서울 및 수도권에는 의석의 3분의 1이 넘게 몰려 있다. 서울만 해도 48개로, 300석 중 6분의 1에 육박한다. 수도권 의석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은 중앙정치 이슈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양당 모두 약재를 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메트로경제신문>은 격전지인 '한강벨트'를 포함한 강북 22개 지역구의 판세를 살펴봤다. 여론조사와 각 당 의 전언을 종합하면 강북지역은 전반적 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이 많 다. 19대 총선 이후 강북은 국민의힘에 '험지'로 여겨질 만한 곳이 많아져서



제22대 총선 선거기간 개시일을 하루 앞둔 27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CCTV 통합 관제센터에서 직원이 후보자 등록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시스

다. 서울 강북 22개 지역구 중 민주당이 우세한 곳은 12곳, 초접전지는 4곳, 접 전지는 6곳이다.

민주당이 우세하다고 판단한 지역은 서울 강북갑·을, 노원갑·을, 도봉갑· 을, 중랑갑·을, 마포을, 서대문을, 은평 갑·을이다. 이 중 서대문을과 도봉갑·을 을 제외한 곳은 여론조사도 거의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 강북·노원·중랑· 은평구는 전반적으로 민주당 표심이 굳 건한 편이다. 21대 총선에서 모두 민주 당이 싹쓸이했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도 민주당 후보가 구청장에 당선됐다.

이 지역 중에서 관심을 끌었던 것은 도봉갑과 서대문을, 마포을이다. 마포 을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현역이다. 국민의힘은 기존에 지역에서 활동하던 인사로 정 의원을 이기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고, 운동권 출신인 함운경 후보를 마포을에 공천했다. 이 때문에 마 포을의 대진표가 완성됐을 때 지역 단 위 여론조사가 많이 발표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결과는 10%포인트 이상 정청 래 의원이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서대문을 역시 국민의힘에는 '험지' 로 꼽는다. 이 때문에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했던 현역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서대문으로 차출했다. 장관 출신에 중 량감 있는 인사가 서대문으로 이동하다 보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지원 유세를 가기도 했다.

그러나 발표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이 지역 현역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이 15%포인트 이상 앞선 것으로 나타났 다. 다만,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민주당 측 에선 김영호 의원이 '바닥 선거'를 하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봉갑은 '이재명의 입'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이 공천돼 눈길을 끌었다. 해당 지 역은 4년 전 총선에 나왔던 김재섭 국민 의힘 후보가 여당 후보로 나섰다. 두 후 보가 모두 젊은 정치인이지만, 김 후보는 지역을 오래 다졌고, 안 대변인은 전략공 천을 받았기 때문에 쉽사리 예측이 어렵 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도 봉갑 역시 우세 지역으로 보고 있다.

강북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초경 합으로 보고 있는 지역은 용산과 동대문

갑, 광진갑, 중·성동을 등 4곳이다. 용산 은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국민의힘)이 현역으로 있으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려운 지역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당 소속으로 이곳에서 당선된 것은 단 두 차례 뿐이다. 그나마도 한 차례는 새누리당(국민의힘)에 있던 진영 의원 이 민주당에 입당해서 출마해 당선된 경 우다. 이에 용산의 최근 여론조사 추이 를 보면 강태웅 민주당 후보와 권 전 장 관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 중이다.

동대문갑과 광진갑, 중·성동은 여 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숨어 있는' 접전지라는 것이 양당의 평가다. 해당 지역은 아파트단지가 있는 지역에 서 표심이 보수화됐기 때문에, 어느 쪽 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한다.

이외에 접전지로는 종로, 광진을, 동 대문을, 마포갑, 서대문갑, 중·성동갑 등 6곳이 꼽힌다. 민주당은 해당 지역을 경합우세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마포갑과 서대문갑이 백중세라고 진단 했다. 국민의힘은 약재가 어느 정도 지 나가면 수도권에서 기세를 올릴 수 있다 는 입장이다. /서면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저출생 해법... 국힘 '현금지원 재설계' vs 민주 '3자녀 1억'

각 정당들 저출생 문제해결 정책
국힘, '인구부' 신설 각종 갈등 해소
민주, 주거·자산 축적 등 패키지 내놔

지난해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 한 가운데, 단기간에 급속도로 하락한 합계출산율이 '희망을 잃은 대한민국' 을 보여준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

오고 있다.

저출생 문제는 주거·보육·양육·자산 축적·안전·노동 등 대한민국 사회 전반 과 연관이 있는 만큼, 각 정당들은 패키 지 정책을 내놓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갈을 빼들었다.

◆국민의힘, '일·가족 모두 행복'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과 가족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저출생 패키지 공

약을 선보였다. 국민의힘은 인구부 를 신설해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 고,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저 출생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돌봄 교실과 방과 후 프 로그램을 통합한 '늘봄학교'를 2027년 까지 초등학교 전체로 넓혀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다만, 국

민이힘은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선진 국에 비해 육아기에 현금성 지원이 대 폭 지원되는 것을 감안해 이를 재설계 해서 육아에 필요한 실질적인 서비스 로 지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계 획이다.

◆민주당, '결혼·출산·양육의 양립'

더불어민주당은 주거와 자산 축적, 돌봄, 일·가정 양립을 전체적으로 챙기

는 패키지 정책을 내놨다. 민주당은 2자 녀 출산시 24평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3자녀 출산시 33평 분양전환형 공공임 대를 제공하는 동시에 현행 7년인 신혼 부부 주거지원 대상은 10년으로 확대하 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자산 축적분야에선 결혼식 소득과 자산에 상관 없이 10년 만기로 1억원까지 대출해주고, 자녀를 3명까지 낳으면 대출이자를 무이자로 감면하고 원금 전액을 감면해주는 파격적인 공약 을 내놨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처음부터 끝까지 시~바른 발전

친환경 발전소를 세우고
바른 에너지를 만들고
안전한 원전 해체를 통해
다시 깨끗한 자연으로 되돌리는 일

지구를 살리는
모든 올바른 발전을 위해
고리원자력본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본부



IBK기업은행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IBK기업은행이 나에게 왔다

중소기업 대출, 이제 비대면으로 신청하세요

집에서 사무실에서 클릭 몇 번이면

내 기업에 맞는 제안이 찾아옵니다

**대출을 위해 하던 수고와 노력
이제 기업은행이 합니다**

IBK
BOX

IBK 대출통로 BOX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561호(2024.03.20) 유효기간(2025.03.19) • 대출통로 BOX관련 자세한 문의로는 BOX고객센터(☎02-729-7633) 혹은 IBK고객센터(☎1566-2566)으로 연락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취급이 부적절한 경우(연체금 보유, 개인신용평점 등 낮음)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담보 물건, 담보종류 등에 따라 대출조건이 차등 적용되며, 담보물이 부적합할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IBK
BOX 대출통로

사업자라면 누구나 은행방문 없이 대출신청과 상담이 가능한 비대면 서비스

OPEN

당행 거래고객이 아니라도
사업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

O2O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은행이 알아서 연락하는 O2O 대출 서비스

ONE-STOP

복잡하고 다양한 대출심사 서류를
비대면으로 한 번에 제출



대출신청 바로가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인천 미추홀구 인화 문화의 거리를 방문해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심재돈 후보, 인천 동구·미추홀구를 윤상현 후보와 함께 인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충북 충주시 무학시장을 방문해 한 시장 상인의 손을 들어 올리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거대 양당 정면대결 구도... 지도부, 지지층 결집 '구슬땀'

공식 선거기간 돌입

제3지대 빅텐트 좌초... 2강 체제
국민의힘-민주당, 여론조사 접전
인천·충주 등 현장 유세지원 분주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접전 양상처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격전지 곳곳에서 백중세를 보이며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리퍼블릭이 YTN의 의뢰를 받고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

에 정당 지지도를 물은 결과(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무선 100%, 응답률 13.9%,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민주당은 39%, 국민의힘은 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거대 양당의 공천 시작 전까지 제3지

대 정당이 우후죽순 생겨나며 새로운 돌풍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기대를 모았으나, 제3지대 빅텐트가 좌초되면서 22대 총선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면대결 구도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이를 인식한 듯,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주 초부터 격전지로 떠오른 서울 중·성동구와 강동구를 찾으며 지원했다. 또한, 한 위원장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 출국·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언론 회갈 테러 언급·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명단 갈등·대과값 875원 논란 등 당에 갖가지 악재가 겹치자 전날(26일)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며 지지층 결집을 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위원장은 이날도 인천 전역을 누비면서 수도권 위기론 속에서도 정부와 함께 힘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미추홀구 인화 문화의거리 거리인사에서 심재돈 동·미추홀구갑 후보와 윤상현 동·미추홀구를 후보와 함께 단상에 올라 "저희가 인천의 발전을 책임지겠다. 인천이 지금까지 발전해왔나"라며 "인천의 역사적 의미, 전통, 대한민

국에 해준 일에 비해서 인천 시민은 걸맞는 대접을 받지 못했다. 저희가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도 선거 지원에다 재판 출석까지 눈코뜰새 없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새벽 경상남도 거제시 삼성중공업 출근인사를 시작으로 이번 총선에서 격전지로 꼽히는 낙동강 벨트 선거구를 돌며 힘을 보탤다. 또한 26일에는 친민주당 성향 유튜브 김어준 씨의 방송에 출연해 지지층 결집을 노렸으며, 청년 후보가 공천된 서울 서대문갑에서 출근인사를 한 후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 이후 동작구와 강동구를 찾으며 후보들을 지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충북 충주를 시작으로 제천과 청주를 방문하며 민심의 바로미터인 충청 민심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대표는 충주 자유시장 입구에서 연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동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정말로 답답한 현실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해양치유완도

2024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2024 Cheongsando Slow Walking Festival

기운이 필요하다
청산도를
느리게
가어보라

2024. 4. 6.(토) ~ 21.(일)
완도군 청산면 일원

주최 | 완도군 주관 | 청산도슬로걷기축제추진위원회

'국회 이전' 핵심 키워드 부상

국민의힘 "여의도 정치 끝내야" 민주당 "당장이라도 논의할 것"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을 2주 남겨둔 27일 '국회 전체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지난해 국회는 12개 상임위원회만 이전하기로 했는데, 전체 상임위를 모두 세종에 두고 서울의 개발을 풀자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 전체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은 위한 소지가 있는데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아 비판이 제기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 개발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이미 세종에 부지는 준비돼 있고, 공사도 예정돼 있다"면서 "안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행정의 수도로 완성되게 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는 서울의 새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인근은 75m 고도제한이 걸려 있는데, 이를 포함한 개발 규제를 풀어 여의도에 금융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한 위원장의 구상이다.
이어 "여의도뿐 아니라 인접한 마포,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월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미래 정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한 위원장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한편 민주당은 한 위원장에 제안에 대해 워한 시비 등이 있지만 추가 논의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이 문제에는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그렇기에 한 위원장이 민주당 입장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에 대해 다행이라 생각하고, 당장이라도 만나서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syj@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신한투자증권 앱의 새 이름 신한 SOL증권

투자를 새롭게, 즐거움은 더 크게
새로운 투자의 즐거움, 신한 SOL증권이 함께하겠습니다

IOS



AOS



신한 SOL증권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뺏 올리는 DGB금융 황병우號... 시중은행 전환 원년 이끈다

오늘 주총서 회장 선임안 논의
취임 후에도 대구은행장 겸임

국내 최연소 금융지주사 회장
금융권 세대교체 바람 관측도
조직안정화·영업망 확보 과제

DGB금융그룹이 새로운 사령탑을 맞이한다. DGB금융을 6년간 이끈 김태오 회장이 28일 임기를 마치고, 회장 내정자인 황병우 대구은행장(57)이 회장 임기를 시작한다. DGB금융의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만큼, 최연소 금융지주회장 내정자의 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DGB금융은 오는 28일 주주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 내정자인 황병우 현 대구은행장의 선임 안건을 논의한다. 임기는 3년이다. DGB금융 규정이 대구은행장 임기를 최소 2년으로 정하는 만큼 황 내정자는 회장 취



황병우 DGB금융 차기 회장 내정자(현 대구은행장). /DGB금융

임 이후에도 대구은행장을 겸임한다.

황 내정자의 금융지주 회장 취임은 DGB금융 내부에서 바라던 일이다. 금융당국이 기존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연임을 견제하는 등 금융권 지배

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하는 만큼, 황 내정자를 시작으로 금융권에 세대교체 바람이 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발표해 금융지주사에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내 8개 금융지주사는 지난 15일 금융당국에 지배구조 개선 로드맵을 제출했다. 일부 지주사의 로드맵에는 ▲상시 후보군 관리 ▲후보군에 대한 회추위 평가 도입 등 DGB금융의 경영 승계 절차와 유사한 개선안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 내정자의 취임 이후 최우선 과제로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이후 DGB금융의 조속한 조직안정화 및 성공적인 전국 단위 영업망 확보가 꼽힌다.

국내 최초로 지방금융지주가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만큼 지방 영업에 특화된 기존 조직을 전국 영업에 적합한

체질로 개선하는 과정과 더불어 기존 금융지주와의 체급 차를 극복하고 영업권을 구축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

황 내정자는 시중은행 전환 추진 당시 '뉴 하이브리드뱅크' 전략을 제시했다. 개인 금융에서는 내·외부 핀테크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영업을 확대하고, 기업 금융에서는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는 금융 서비스를 맞춤형 서비스를 중심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화두로 떠오른 주주 권한 강화 및 배당 확대를 통한 기업 제고 및 지배구조의 개선도 황 내정자의 과제로 꼽힌다.

최근 금융권은 지난달 금융당국이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라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사외이사 확충 등 기업가치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BNK금융과 JB금융은 사외이사를

확충했고, KB금융과 하나금융, 신한금융과 우리금융은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및 배당을 확대했다. DGB금융은 아직 사외이사 확충이나 중간배당 등을 진행하지 않았지만, 황 내정자의 취임 이후 사외이사를 우선 확충한다.

DGB금융 관계자는 "DGB금융은 연내에 주총 안건으로 사외이사 증원을 다룰 계획이다"라며 "금감원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자 여성 사외이사를 1인 이상 총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매입 및 소각도 추진할 계획이다.

천병규 DGB금융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올해 자사주 매입에 나설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시기와 규모는 확정하지 않았다"며 "주주 입장을 고려해 매입 후 소각이나 교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문턱 낮춘 청년도약계좌... 군인도 가능

가구소득 중위 250% 이하로 조정
軍 장병·전역 청년들도 신청 대상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정책 '청년도약계좌'의 흥행이 저조하자 금융당국이 가입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청년도약계좌 '실패'라는 꼬리표를 달지 않기 위한 조치로, 가입요건 완화가 분위기를 반전시킬지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누적 신청 수가 221만5000명을 기록했다.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운영된 3월 계좌개설 기간에 가입요건 확인 절차 등을 거쳐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26만8000명으로 누적 계좌 개설 수는 82만6000명을 기록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난해 6월 출시됐다.

당초 정부가 예상한 가입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06만명이었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을 보태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설계됐다. 만 19~34세인 청년 중 개인소득 기준(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은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만~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문제는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흥행 실패를 예상한 정부는 부랴부랴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완화시키면서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고 있다

금융위는 청년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했는데 이를 '250% 이하'로 완화했다.

이번 조치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한 가구소득 요건은 보건복지부 고시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연소득 ▲1인 가구 4200만→5834만원 ▲2인 가구 7041만→9780만원 ▲3인 가구 9060만→1억2584만원 ▲4인 가구 1억1061만→1억5363만원 등으로 조정된다.

또한 군 장병 및 전역한 청년도 지난 25일부터 군 장병 급여를 근거로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요건을 완화하면서 상대적으로 고소득 가구에 속하는 청년들 역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저조한 실적을 만회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지난 26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토크콘서트, 공감IBK'에서 김성태 IBK기업은행장과 직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IBK기업은행

김성태 기업은행장, 직원들과 소통행보

'토크콘서트, 공감IBK' 진행

IBK기업은행은 김성태 은행장이 지난 26일 기업은행 본점 IBK 열린도서실에서 직원 30여명과 '토크콘서트, 공감IBK' 시간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평소 직원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김행장이 제안해 시작된 토크콘서트는 편안한 공간에서 직원들과 자유로운 주제로 소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은 신

입부터 팀장까지 다양한 직급의 직원들이 참석해 '리더와 팔로워, 함께 걷는 IBK'를 주제로 90분간 진행됐다.

김행장은 조직 내 리더와 팔로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라 생각한다"며 "세대·직급간 가치관의 차이를 존중하고, 서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軍 장병, 정책금융 모두 가입뎀 전역 후 3000만원 '목돈'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3종 정책상품
시중상품보다 금리 높고 세제혜택 ↑

정부와 금융당국이 청년대상 정책금융상품을 잇달아 출시하면서 군 장병이 가입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의 종류도 늘고 있다. 올해 입대한 장병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정책금융상품에 모두 가입한다면 전역 후 기대 자산은 약 3000만원(18개월 기준)에 달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25일부터 청년도약계좌의 소득 근거에 군 장병 급여를 포함키로 했다. 앞서 청년도약계좌는 직전년도 소득 근거가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어 임금이 소득 근거로 인정되지 않는 군 장병 및 직전년도 전역자의 가입은 어려웠다.

이에 따라 현재 군 장병이 가입 가능한 청년대상 정책금융상품은 장병내일

준비적금,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 청약 등 세 개다. 정책금융상품은 통상 시중은행 금융상품보다 금리가 높고 정부지원금이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장점이 있어 자산 형성에 유리하다.

18개월을 복무하는 군 장병이 납입액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제공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최대 월 40만원), 청년도약계좌(최대 월 70만원)에 가입하고 최대로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전역 후 기대 가능 자산은 약 2834만원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도 공공분양 청약의 월 납입 인정액인 월 10만원을 매달 납입한다면 총 기대 가능 자산은 약 3000만원에 달한다. 상품별로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수령액이 1474만원, 청년도약계좌 납입액 및 기대 이자가 1360만원(군 장병 소득 구간 적용, 비과세 혜택 적용 기준), 청년주택

드림청약 납입액 및 기대 이자가 186만원(2년 이상 유지 금리 기준, 무주택 가구 비과세 미적용 기준)이다.

다만 최대 납입액이 복무 기간 내 평균 급여(18개월 기준)인 92만원을 상회하는 만큼 여유 자금이 없어 납입이 어렵다면 최고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에 맞춰 납입하는 것이 좋다.

최고 금리 적용 기준에 맞춰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월 40만원, 청년도약계좌에 월 40만원을 납입할 시 총 기대 자산은 2270만원 수준이다.

다만 청년도약계좌와 청년주택드림 청약은 비과세 혜택 및 지원금을 적용받기 위해 각각 5년과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하거나 특별해지사유가 발생해야 하는 만큼 해당 상품 가입 시에는 전역 후 기대 소득도 고려해야 한다.

/안승진 기자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 추진

세종시-LH 기업 컨소시엄 구성
21종 스마트 서비스 설계 등 이행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5-1) 행복도시 생활권을 조성할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는 모빌리티·헬스케어·데이터플랫폼 등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도입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다.

이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승인으로 세종 스마트시티를 사업시행자

로 지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비를 지원한다. 세종 스마트시티는 세종특별자치시와 한국도주주택공사(LH), 기업 컨소시엄으로 구성됐다. 세종 스마트시티는 시범도시에 도입될 21종의 스마트 서비스 설계 개발과 함께 건축설계 등 도시 개발을 위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행복청은 세종시범도시를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서비스를 누리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세종시와 LH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SK그룹 주주총회

‘파이낸셜 스토리’ 대폭 수정... “수펙스 중심 업그레이드”



장동현 부회장, 주가하락 사과
“기업가치 높이기 위해서 최선”

장용호 사장, 사내이사 선임

SK그룹이 미래 성장 전략인 ‘파이낸셜 스토리’를 대폭 수정한다. ‘파이낸셜 스토리’는 2020년 최태원 회장이 처음 개념을 제시한 후 2021년 정립했는데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판단에서다.

장동현 SK에코플랜트 대표이사 부회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제33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각 사별로 지난 2021년부터 모든 상황을 다시 리뷰하며 이를 토대로 파이낸셜 스토리를 업그레이드하고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 스토리는 최태원 회장이 2020년 확대경영회의에서 처음 개념을 제시했다. 이후 2021년 SK(주) 사장이던 장동현 부회장이 주도해 만든



SK 서린사옥 전경

/뉴스

미래 혁신 성장 전략으로 2025년까지 SK(주) 주가를 주당 200만원으로 올려 시가총액 14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 주가는 20만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주주들의 성토가 이어지자 이같이 답했다. 장 부회장은 이번 주총을 끝으로 SK에코플랜트 부회장직으로 이동한다.

장 부회장은 “현재 기업가치가 당

시 목표(140조원)와 괴리가 크다는 것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최대한 노력을 해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 부회장은 SK그룹 친인척의 SK 주식 매각에 대해 “특수관계인인 하지만 개개인의 어떤 개인재산이나 권리 처분에 대한 이슈”라며 “여기서 적절한 답변을 하기 곤란하다”며

양해를 구했다. 최근 최태원 회장 조카인 최성환 SK네트워크사업총괄 사장과 부인이 SK 주식을 꾸준히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장 부회장은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주도 아래 사업 정리 가능성과 관련 “지난 2021년은 유동성이 풍부한 시기였고, 당시 환경이 현 시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며 “수펙스 중심으로 각 계열사 파이낸셜스토리를 재검토하고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 부회장은 “지금까지 진행한 파이낸셜 스토리를 앞으로 어떻게 업그레이드할 것인가 논의해 6월 회의에서 공유하고 10월 CEO세미나(사장단 회의)에서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SK그룹 컨트롤타워인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으로 최태원 회장은 사촌동생인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이 취임했다. 이후 SK는 사업구조 개편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말 인사에서는 SK수펙스추구협

의회와 SK(주)에 분리된 투자 기능을 SK(주)로 합치고 투자 인력 상당수를 계열사로 이동시켰다.

끝으로 SK스퀘어와의 합병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장 부회장은 “현재 구체적으로 SK스퀘어와의 합병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며 “SK스퀘어에도 주주와 독립된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향후 별도로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 논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는 장용호 사장을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이사회는 사내이사가 기존 4인에서 3인으로 줄고 사외이사 수가 5명으로 유지되면서 9인 체제에서 8인 체제로 재편됐다. ▲재무제표승인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임원퇴직금 규정 개정 등 5개 안건도 통과됐다. SK그룹 친인척의 주식매각이 거론되며 주가하락에 대한 주주들의 성토도 이어졌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낸드사업 ‘수익성 중심’ 전환... “다운턴시에도 안정적 운영”



곽노정 사장, AI 메모리 개발과정 소개
“내년도 HBM은 수급 타이트 할 것”

“다운턴이 찾아와도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겠다.” SK하이닉스 주총은 생생형 인공지능(AI) 붐 이후 주역이 된 HBM(고대역폭메모리)에 관한 비전과 전략, 주주들의 질문으로 채워졌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인디애나주에 첨단 패키징 공장을 건설한다는 현지 보도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고수했다.

SK하이닉스가 27일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수펙스홀에서 제76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다. 곽노정 S

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은 AI 메모리 선두로써 입지를 굳히는 데 성공한 공을 HBM, DDR5로 돌리고 그간 개발 과정을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곽 사장은 지난해 엔비디아(NVIDIA)가 사상 최대 실적을 냈음에도 SK하이닉스가 9조원대 당기 순손실을 낸 사실에 대해 “매출 비중이 큰 D램 제품 가격이 떨어지고 수요가 부진했는데, 엔비디아는 AI항 서버 내지 GPU 관련 제품이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차이가 나는 것”이라며 “지난해 전체 D램 판매량 중 HBM 판매량은 한 자릿수 퍼센트지만 올해는 전체 D램 판매량 중 HBM(고대역폭 메모리) 판매 비트(bit) 수가 두 자릿수 퍼센트로 올라와 수익성이 크게 개선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내년 수주 전망에

대해서도 “아직 확실히 밝힐 수는 없으나 내년도 HBM 수급은 타이트(tight)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봤다.

전날 WSJ가 보도한 인디애나주 패키징 공장 설립에 대해서는 “확정된 내용은 없고 검토 중”이라며 부지 선정 예상 시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피했다.

WSJ는 SK하이닉스가 40억 달러(약 5조 3800억원) 규모의 칩 패키징 공장을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파예트 퍼듀대 인근에 설립하고 2028년 가동을 목표로 한다고 보도했다. 앞서 1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SK하이닉스의 칩 패키징 공장 부지로 인디애나주를 선정했다고 보도했는데, WSJ는 강력한 학문적 지원이 가능한 애리조나주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곽 사장은 주주 질의에 앞서 올해 경

영 전략 발표에서 지난해 손실이 컸던 낸드 사업의 방향성을 점유율 중심에서 수익성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감한 투자로 점유율을 확대 왔지만 시장의 성장 지연으로 재무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는 지속하되, 전체적인 낸드 투자는 수익성 중심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토모티브, 게이밍,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등 고수익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전략 조정도 언급했다. 곽 사장은 “장기적인 성장과 재무 안정성 밸런스를 고려한 설비투자가 있을 것”이라며 “고수익 제품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신규 제품은 적기에 개발되 양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이 이천 본사에서 열린 제7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 규모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발전포럼 참석을 위해 베이징 출장을 다녀온 것에 관해서는 “중국 현지 경영 환경 점검 차원”이라며 “중국 양회가 끝나기도 했고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를 점검해 우리 사업에 반영할 요소가 있는지 살폈다”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eoh@

SK온-페라리, 배터리셀 기술혁신 맞손... “전동화 여정 함께”

전문성 공유... 기술협력 확대

SK온과 이탈리아 슈퍼카 브랜드 페라리(Ferrari)가 배터리셀 기술 혁신을 위해 협력한다. 페라리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에 SK온 배터리를 탑재하면서 시작된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양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SK온은 전날 오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페라리와 ‘배터리셀 기술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SK온 이석희 사장, 성민석 최고사업책임자(CCO), 이장원



(왼쪽부터)이석희 SK온 사장과 베네데토 비나 페라리 최고경영책임자(CEO)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배터리셀 기술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K온

최고기술책임자(CTO)와 페라리 베네데토 비나(Benedetto Vigna) 최고경

영책임자(CEO), 에르네스토 라살란드라(Ernesto Lasalandra) 최고연구개발책임자(Chief R&D Officer)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각사의 전문성을 공유하면서 그간 이어온 기술 협력을 한층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배터리셀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것이 목표다.

이석희 SK온 사장은 “세계 슈퍼카 시장을 선도하는 페라리의 전동화 여정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며 “양사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결합해,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두산에너지빌리티, 항공용 엔진 개발 본격화

주총서 ‘항공기 엔진 제작’ 목적 추가

두산에너지빌리티가 발전용 가스터빈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항공용 엔진 개발에 본격 나선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지난 26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항공기 엔진 제작, 추진체 보조기 부품 제작, 정비와 판매 및 서비스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사는 이를 계기로 항공기, 특히 무인기 엔진 개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두산에너지빌리티가 개발에 성공한 발전용 가스터빈과 항공용 엔진은 기술 기반이 동일하고, 구조와 작동 원리도

유사하다. 비행체의 추력(물체를 운동 방향으로 밀어내는 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항공용 가스터빈의 핵심 요소는 고효율, 경량화, 작동 유연성이다. 발전용 가스터빈은 고효율, 고효율, 안정성이 요구되고 항공용에 비해 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설계, 제작 기술, 소재 기술 등 노하우를 항공용 엔진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다.

두산에너지빌리티 파워서비스BG 손승우 부사장은 “항공 엔진 국산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해외시장 진출의 초석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2023년 7월 25일 포스코지킴이어린이집 교사와 원아들이 포스코의 캐릭터인 '포석호'가 그려진 옷을 입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포스코

포스코 “직원도 아이들도 웃음꽃” 상생으로 선한 영향력 전파 ‘눈길’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 건립
대·중소 사업주 함께 설치·운영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 시행

포스코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차원에서 해법을 제시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포스코는 포항과 광양에서 2020년 6월부터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을 운영 중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함께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협력사 자녀의 비중이 전체 정원의 약 50%를 차지한다. 포스코는 그 이전에는 포항, 광양 주택단지 내 포스코 임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2개소를 각각 운영해왔으나, 2019년 4월 근로복지공단과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 설치 MOU를 체결하고, 포스코는 물론 그룹사, 협력사 직원 자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을 건립했다.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 컨소시엄’에는 포항지역 19개 그룹사와 41개 협력사가 참여 중이다. 광양에는 18개 그룹사 및 88개 협력사가 함께 한다.

포스코 본사 옆에 건립한 ‘포스코 동

촌어린이집’은 아이들이 늘 자연을 느끼고 창의력을 높일 수 있게 2층 높이의 실내정원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실내에서도 푸른 하늘을 볼 수 있게 천장을 두어 어린이집 곳곳에 햇살을 가득 담을 수 있게 했다. 실내정원에는 열대과일 식물을 심어 자연체험학습의 장으로 만들었다.

또 아이들이 책읽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오픈형 도서관을 배치했으며, 신체놀이활동이 가능한 런닝 트랙을 만들었다. 특히 2022년부터는 포스코 운영 어린이집 최초로 원아민 영어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광양제철소 주택단지에서 건립한 ‘포스코 금당어린이집’은 나무를 활용한 숲속 놀이터, 계절별 이벤트가 가능한 옥상놀이터 등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설계했고, 반응형 디지털 모션월을 설치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놀이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남향으로 배치된 보육실에서는 아이들이 계절의 변화를 직접 느끼며 자연과 소통할 수 있도록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창을 만들었으며, 주변 주택단지의 건물색과 조화를 고려해 밝고 따뜻한 색상의 고

내식 철강재인 포스맥 외장재를 사용했다.

한편 포스코는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과 기존 어린이집 외에 2020년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에 그룹사와 협력사, 입주사 자녀들도 이용할 수 있는 제2 어린이집을 새롭게 단장했으며, 직원들의 출산장려 및 육아기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2020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포스코는 협력사 직원들도 미래에 대한 걱정없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복리후생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 2021년 6월 24일에 포항 포스코본사에서 포스코 노사대표와 포항 및 광양지역 협력사 노사 대표들이 모여 ‘포스코-협력사 상생발전 공동 선언식’을 가졌다. 이 때부터 포스코는 모든 협력사 직원 자녀들이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학자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포스코 상생협력 전액 장학금’을 위한 기금 조성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권오갑 “근로자들의 안전이 제일 소중”

(HD현대 회장)

외국인 근로자들과 오찬 간담회
업계 최초 사내 ‘외국인지원센터’



육 등 회사의 다양한 지원책 덕분에 적응이 한결 수월해졌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권오갑 HD현대 회장이 조선소 생산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만나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HD현대는 27일 권오갑 회장 등 주요 경영진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울산 HD현대중공업 영빈관으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HD현대중공업 및 HD현대미포의 협력사 등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7개국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 42명이 참석했으며, 권오갑 회장 외 HD현대중공업 이상근·노진율 사장, HD현대미포 김형관 사장 등 HD현대의 조선 계열사 최고 경영진이 함께 자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권오갑 회장은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식사하며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타국 생활의 어려움을 위로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생활 및 행정 전반에 걸친 통역 지원과 직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한국어 교

HD현대중공업은 업계 최초로 사내에 ‘외국인지원센터’를 설치하고 8개국어를 구사하는 통역 지원 인력을 상주시켜 외국인 근로자들의 소통을 돕고 있다. 한식이 입에 맞지 않거나 종교적 이유로 특정 식재료를 먹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맞춤형 글로벌 식단도 제공한다.

또 현지어로 된 안전교육 교재를 제작·배포하고, 법정교육 외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권오갑 회장은 “회사는 여러분이 가족 품으로 돌아갈 때 건강하게 금의환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여러분의 안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생각으로 작업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성운 기자

현대글로벌비스, 글로벌 가스운송 항로 넓힌다

초대형 가스운반선 2척 도입

현대글로벌비스가 글로벌 가스 사업을 본격 개시했다. 이를 위해 신조 초대형 가스운반선(VLGC) 2척을 도입한다.

이와 관련 현대글로벌비스는 26일 전남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조선소에서 첫번째 자체보유 가스운반선(VLGC)인 ‘태백 익스플로러’호의 명명식을 열었다. 또한 ‘소백 익스플로러’호로 명명된 두번째 가스운반선은 같은 선형의 쌍둥이 선박으로 올해 중순 해상운송에 투입 예정이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초대형 가스운반선(VLGC) 2척을 도입해 글로벌 가스 운송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27일 밝혔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지난 26일 전남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조선소에서 ‘태백 익스

플로러’호의 명명식을 열었다. 태백 익스플로러호는 현대글로벌비스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게 된 첫 번째 가스 운반선이다. 쌍둥이 선박인 ‘소백 익스플로러’호는 올해 중순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들 선박은 8만6천㎥의 액화석유가스(LPG)를 선적할 수 있는 초대형 가스 운반선이다. 이는 2023년 집계 기준 국내 가정·산업에서 약 10일 동안 소비할 수 있는 양이다. 화물창이 특수 재질로 제작돼 LPG뿐 아니라 암모니아도 운송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암모니아를 선적할 수 있는 가스 운반선은 50여척 내외로, 전체 선대의 약 10% 수준이다.

이들 선박에는 LPG 이중연료 엔진과 축 발전기가 설치돼있어 연료 효율도 높다.

/양성운 기자

SKT·LGU+, 6GB 데이터 3만원대로 제공

SKT, 6GB 데이터 제공 ‘컴팩트’
2만원대 온라인 전용 요금제도 선보
LGU+, 5GB 제공하는 ‘5G 미니’
KT와 가격 같지만 데이터 1GB ↑

KT에 이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했다.

SK텔레콤은 28일부터 월 3만9000원에 6기가바이트(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컴팩트’ 5G 요금제와 2만원대 온라인 전용 5G 요금제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해당 요금제는 데이터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최대 400kbps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추가 충전도 가능하다. 컴팩트 요금제의 경우 월 3000원에 1GB의 추가 데이터를 1회에 한해 충전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월 3만7000원에 5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5G 미니’ 요금제를 이날 선보인다. 마찬가지로 기

본 데이터 소진 시 최대 400kbps로 계속 이용 가능하다. 다만, KT의 3만원대 5G 요금제와 가격은 같지만 데이터 제공량은 1GB 더 많다.

이밖에도 SKT와 LG유플러스는 중저가 요금제도 개편했다.

SKT 34세 이하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0청년 37(월 3만7000원·6GB)’ 요금제를 출시한다. 아울러 월 4만 5000원에 8GB를 제공하는 ‘컴팩트플러스’도 새롭게 선보인다. 해당 요금제 이용 고객은 데이터를 다 사용한 후에도 최대 400kbps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전용 상품의 경우 5G 요금제의 시작 가격대를 2만원대로 낮췄다. 온라인에서는 월 2만7000원에 6GB를 주는 ‘다이렉트 5G 27’과 월 3만 1000원에 8GB를 제공하는 ‘다이렉트 5G 31’을 출시했다. ‘다이렉트 5G 27’은 월 3만9000원 ‘컴팩트’ 요금제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월 요금은 30%가량 저렴하다.

LG유플러스는 5만원대 요금제를 세분화시킨 ‘5G 베이직+’을 출시했다. 이 요금제는 월 5만9000원에 24GB의 데이터가 기본 제공되며, 소진 시 최대 1Mbps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청년 가입자를 위한 데이터 혜택도 확대했다. 지난해 일반 요금제 대비 데이터 제공량이 50% 많은 ‘유쓰 5G 요금제’ 가입 대상을 기존 19~29세에서 19~34세로 변경한다.

김지형 SK텔레콤 통합마케팅전략 담당은 “5G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고객의 다양한 니즈와 이용 패턴을 반영한 5G 요금제를 출시하고 있다”며 “SK텔레콤은 앞으로도 고객의 눈높이와 실질적인 혜택을 고려한 합리적인 5G 요금제를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CJ올리브네트웍스, AI기술력 등 뽐낸다

‘스마트공장·자동화 산업전’ 참가

CJ올리브네트웍스가 29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4 스마트공장·자동화 산업전(Automation World 2024)’에 참가했다. 스마트공장·자동화 산업전은 스마트팩토리, 공장 자동화, 머신비전 등 최신 제조 기술과 솔루션을 선보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스마트팩토리 자동화 산업 전시회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이번 전시회에서 디지털전환(DX)을 위한 제조물류 기술과 인공지능(AI)서비스를 소개한다. 부스는 크게 ▲스마트제조(Smart Factory) ▲스마트물류 및 자동화설비(Smart Logistics and Automation) ▲AI 기반 스마트 제조물류 서비스 ▲고객 DX 혁신 사례 및 파트너 등 4개의 메인 존을 구성해 전시 운영한다.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CJ올리브네트웍스의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CJ올리브네트웍스 관계자는 “스마트팩토리·자동화 산업전을 통해 선보이는 당사의 차별화된 제조물류 솔루션과 서비스가 현장에서 디지털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고객에게 인사이트를 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

데뷔 30주년 기념

나윤선 Elles 콘서트

DATE: 2024.04.17 (WED) 19:30

VENUE: 롯데콘서트홀

TICKET: LOTTE CONCERT HALL **yes24**

R석 120,000원, S석 100,000원, A석 80,000원, B석 60,000원
문의 070-8671-8103



Alive! **얼라이브! 맥스 바이탈**

나윤선 "Elles" 콘서트 관람 고객 모든 분들께
고급 액상 멀티비타민 얼라이브 맥스바이탈을 드립니다
[7개입 선물세트]



“반도체株, 상승랠리 시작”... 8만전자 터치, 20만닉스 코앞

삼성전자, 장중 8만원까지 올라
SK하이닉, 신고가 이틀연속 경신
HBM 수요 늘며 추가상승 기대감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본격 반등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잇따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메모리 업사이클 초입 단계인 만큼 반도체주의 상승 랠리도 이제 시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근 일주일 사이 각각 3.77%, 15.78%씩 상승했다. 특히 글로벌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 점유율 53%를 기록한 SK하이닉스는 HBM 독점 공급 중인 엔비디아의 수혜가 그대로 반영되면서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전날에도 17만6600원까지 올랐으며, 이날도 18만1200원에 마감해 신고가를 이틀연속 경신했다. 이를 사이에만 6.96% 상승하면서 ‘20만닉스’에 가까워진 모습이다.

인공지능(AI) 강세에 따른 반도체 훈풍에도 박스권에 갇혀 있던 삼성전자도 전날 장중 8만100원까지 오르면서 ‘8만전자’ 돌파 가능성을 보여줬다. 삼성전자가 8만원 선을 터치한 것은 약 2년 3개월 만이다. 다만 이날은 차익 실현 매물이 발생하면서 전장보다 0.13% 떨어진 7만9800원에 마감했다.

전날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등세를 보이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잇따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뉴시스

국내 반도체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4749억원, SK하이닉스를 1232억원 사들였다. 코스피시장 전체에서 외국인 순매수액이 6230억원임을 감안했을 때, 반도체주가 코스피 상승을 주도한 셈이다.

올해 들어 26일까지는 삼성전자를 4조4492억원, SK하이닉스를 1조5251억원씩 담으면서 총합 약 6조원여치나 사들였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26일 코스피지수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하루 만에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0.7% 상승해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실상 상승을 주도했다”고 분석했다.

증권가에서도 반도체주의 상승랠리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디램(DRAM)의 공급 제한이 지속됐던 만큼 메모리 반도체 업사이클이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채민숙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수요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면서 메모리 업

사이클을 지지하는 3쪽으로 시장 의견이 모이는 등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며 “D램은 공급 제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사이클은 최소 올해 말에서 내년 초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D램 1·2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매수 포지션을 유지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다만 26일(현지시간)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추가 조정을 겪으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날 SK하이닉스는 강세를 유지했지만, 삼성전자는 개인이 1376억원을 순매도하면서 주가가 소폭 하락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오늘 숨고르기 장세가 나타나는 과정에서 기존 주도 업종 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로 대응하거나, 이차전자·플랫폼 등 최근 강세장에서 소외됐던 업종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분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감사보고서 안낸 기업 46곳... 투자자 초긴장

감사의견 비적정도 속출

12월 결산법인들의 정기주주총회가 마무리 되어 가는 가운데 감사 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들이 상장폐지의 위기에 봉착했다. 게다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이 40개사에 달해 이들 기업 투자 주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27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 시스템 카인드(KIND)에 따르면 이날 기준 감사보고서를 미제출한 상장사는 유가증권시장 8곳, 코스닥시장 32곳 등 총 40곳으로 집계됐다. 상장사는 통상 정기주총 7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3월 마지막 거래일이 29일이기엔 적어도 20~22일 중에는 감사보고서가 공시됐어야 하지만 해당 기업들은 아직도 감사보고서를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감사보고서 미제출이라도 ‘단순 지연’ 사유를 밝히며 거래정지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투자자들은 과거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 중 3분의 1 가량이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이어진 전례가 있어 긴장하고 있다.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인 29일까지도 미제출 상태로

남아있는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거래소는 영업실적 악화 등 사유로 경영부실이 심화된 종목을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종목으로 보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관리종목 지정은 투자피해를 예방하고,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감사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기업은 해마다 40~60개 기업에 달하고 있다. 2020년 65곳, 2021년 40곳, 2022년 59곳, 2023년 58곳이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했다.

여기에 ‘감사의견 거절’을 받게 될 경우 상장폐지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이는 감사수행에 있어 제약이 받아 의견표명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계속 존속 여부가 객관적으로 매우 불투명한 경우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것이다.

코스피 상장사는 한정 의견이 나오면 관리종목, 그 이하 등급인 부적정과 의견거절 의견을 받을 시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코스닥 상장사는 감사 의견 비적정이 나오면 상장폐지 요건이 된다.

/허정윤 기자

“아시아 경제·금융시장 경쟁력 강조”

표·오세아니아 거래소 연맹 총회

한국거래소는 제38차 아시아·오세아니아 거래소 연맹(AOSEF) 연차총회를 27일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개최했다. AOSEF는 아시아 지역 거래소의 협력 및 정보교류 확대 등을 위해 1982년에 설립됐으며, 현재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지역 13개국 17개 거래소가 회원으로 참여 중이다.

이번 연차총회는 한국거래소가 개최하는 4번째 총회로, 본래 2020년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4년 만에 대면 개최됐다. 이날 대만증권거래소(TWSE) 셔먼 린 이사장 등

아시아 지역 13개국 17개 거래소 최고경영자(CEO) 및 고위급 임원 50여 명이 각 증권시장의 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총회 의장인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도 회복세를 보이는 아시아 경제 및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강조하고, 현재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등 한국 자본시장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박형준 부산광역시 시장은 축사에서 각국 거래소 관계자의 부산 금융 중심지 방문을 환영했으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자본시장을 대표하는 거래소 간 교류의 장이 열린 것에 대해 축하를 전했다.

/신하은 기자

IB 명가 NH證, ‘정통 영업맨’ 윤병운 체제 출범

제5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내부역량 결집 협업·시스템 효율화”

윤병운 NH투자증권 신임 대표이사가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며 “CEO임과 동시에 영업맨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NH투자증권은 27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제57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윤병운 IB사업부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윤 사장은 30년 넘게 NH투자증권에 몸담은 인물로 기업금융팀장, 커버리지 본부장, IB사업부 대표 등을 거치며 기업금융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바 있다. 윤 사장의 임기는 2026년 3월까지다.

이번 NH투자증권의 정기주주총은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가 이사회의장 자격으로 참여해 진행했다. 정의장은 사내이사 선임 안전에 앞서 “윤병운 후보자는 커버리지 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IB사업부 대표를 맡고 있는 자본시장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윤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내부역량 결집 ▲성과 및 내부통제 ▲사회



윤병운 NH투자증권 신임 대표이사. NH투자증권

적 책임 강화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각자 영역, 각사업부·부문 안에서 작동 중이던 시스템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고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고 언급했다.

또한 자신을 ‘대표이사이자 영업맨’이라고 지칭하면서 “관료·관행적으로

자리 잡은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고 영업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게 지원조직을 운영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윤 사장은 “성과가 있는 조직에는 그에 합당한 보상과 대우가 있을 것이며 내부역량 결집을 위한 협업과, 시스템 효율화 과정 속 기여와 결과에도 투명하고 지속적인 보상을 약속한다”고 구성원들을 독려했다.

끝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주주환원 강화 정책 기조를 수행해 우리의 성장이 주주에게 환원되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유지해 가겠다”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꾸준히 모색해 나가고, ESG 경영을 실천해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NH투자증권은 이번 주총에서 지난해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승인했다.

1주당 현금배당금은 보통주 800원, 우선주 850원, 총 배당액은 2808억 원으로 결의했다. 신임 사외 이사로는 민승규 세종대학교 교수와 강주영 아주대학교 교수를 선임했고 기존 박희식 사외이사 및 이보원 상근감사위원은 연임하기로 의결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미래에셋자산운용, “대체투자 시너지 기대”

자회사 멀티에셋자산운용 합병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자회사 멀티에셋자산운용을 합병한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멀티에셋자산운용 합병을 승인했다.

멀티에셋자산운용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100% 자회사인 대체투자 전문 운용사다. 지난 2016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산은자산운용을 인수한 후 사명을 멀티에셋자산운용으로 변경했다. 이후 멀티에셋자산운용은 부동산, 선박, 기업금융, NPL 등에서 두각을

보이며 대체투자 특화 운용사로 성장했다. 2023년 말 기준 총 운용자산(AUM)은 약 7조원으로, 기존 미래에셋자산운용 운용자산 305조원을 합산하면 총 312조원 규모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번 합병으로 대체투자 사업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사의 운용역량과 경험을 결합해 미래에셋그룹의 대체투자 사업을 보다 장기적이고 글로벌 관점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미래에셋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내외에서 다양한 대체투자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원관희 기자 wkh@

배기가스 규제 완화, K-배터리에 역풍?... 내실·투자의 시간

내연기관차 채택 확대 예상에 배터리업계, 수익성 악영향 관측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입 모아 배터리 3사, 미국에 공장 건설 투자 진행... '입지 확보' 전략



LG에너지솔루션 충북 청주시 오창 에너지플랜트 전경. /LG에너지솔루션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전기차 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차전지의 수요 또한 하락 가능성이 논의되는 모양새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내연기관차 단종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배터리 시장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7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따르면 지난 20일(현지시각) 승용차, 소형 트럭 및 중형 차량에 대한 배기가스 기준이 최종적으로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초안에 비해 완화됐다. 원래 초안에서는 2032년식 승용차의 이

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을 2026년식 대비 56% 줄이려 했으나 최종안은 49% 낮춰졌다.

EU도 지난 14일(현지시각) 기존 안건보다 완화된 내용의 '유로 7' 배기가스 규제를 확정했다. 기존 초안에서는 디젤차의 질소산화물(NOx) 배출을 80mg/km에서 2025년까지 가솔린차 수준인 60mg/km까지 줄여야 했으나 최

종안에서는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 도입 시점도 3년가량 연기됐다.

배기가스 규제 완화로 완성차기업들의 내연기관차 채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기차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언급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전기차 예상 판매량은 1675만대로 전년 대비 19.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해 증가율(33.5%)보다 14.4%포인트(p) 둔화된 것이다. 올해도 전기차 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각 국가별, 지역별 요인으로 성장률이 다소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전기차 수요는 배터리업계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업계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배터리업계 관계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전기차 시장 성장성이 긍정적인 것으로 입을 모았다. 현재 전기차 수요 둔화로 업계 상황이 어렵긴 하나 해당 시간을 활용해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유럽은 중국에 이어 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은 전기차 성장성이 가장 큰 국가로 분석된다"라며 "미국의 전기차 시장의 높은 성장세가 예상됨에 따라 업계는 북미 지역에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했다.

실제로 국내 배터리업계는 미국에 공

장 설비를 하는 등 투자를 진행하며 내실을 다지는데 집중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원통형 배터리, ESS(에너지저장장치) 등을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생산할 계획이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북미 시장에 집중해 입지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삼성SDI 또한 북미 지역에 추가 합작사 및 단독 공장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의 합작공장에서는 원통형 배터리가 각형 배터리와 함께 양산될 것으로 보인다. SK온은 포드와의 합작법인 블루오벌SK를 통해 켄터키주 글렌데일에 제1배터리공장을 건설 중이다. 해당 공장은 2026년 가동을 목표로 한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최근 미국 내 대선 등 변수가 존재하여,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상황에 따라 북미 투자 전략을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한샘 "핵심상품 경쟁력 강화로 성장 모멘텀 발현할 것"

작년 영업의 흑자 전환 했지만 당기순이익은 2년 연속 적자

"비우호적 시장환경의 장기화 대응 전략으로 시현, 지속가능 성장 구축"



국내 종합가구업계 1위인 한샘이 고전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구업계가 반사이익을 받았던 2021년 매출이 정점을 찍은 후 2년 연속 하락, 몸집이 줄면서다. 2022년 당시 손실을 기록했던 영업이익은 지난해 흑자로 돌아섰지만 당기순이익은 2년 연속 적자다.

소비 감소, 시장 경쟁 심화, 전방산업 침체 등의 영향으로 향후 실적도 안갯속이다.

2021년 당시 한샘을 인수한 사모펀드(PEF) IMM프라이빗어쿼티(IMM PE)와 지난해 8월부터 한샘을 이끌고 있는 김유진 대표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샘은 지난해 연결기준으로 매출 1조 9669억원, 영업이익 19억원, 당기순이익 -621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년도 -217억원에서 1년만에 흑자로 돌아섰지만 이익폭은 크지 않았다. 당기순이익은 2022년에도 -713억원을 기록, 2년 연속 적자 상태다. 매출액은 2021년 당시 2조 2312억원으로 고점을 찍은 후 2022년(2조 9억원)에 이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줄었다.

한샘은 2017년 당시 2조 625억원으로 '2조 매출'을 처음 기록한 바 있다.

한샘은 2022년 4월 중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한 '애널리스트 데이'에서 2026년엔 전체 매출을 4조원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2021년 당시 약 9000억원 수준에 그쳤던 홈리모델링 사업부문을 2026년까지 2배 성장을 목표로 하는 등 공격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다.

그러나 '리하우스'로 대표하는 홈리

모델링 사업은 지난해 5909억원으로 전년 대비 11.5% 매출이 하락했다.

주택 매매 거래량이 줄면서 리모델링 수요도 위축됐기 때문이다. 홈퍼니싱 사업도 직전 년도에 비해 12.5% 감소한 5292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사업 부문 중에선 지난해 B2B(특판 및 자재판매)가 전년 대비 18.2% 성장한 5413억원을 기록하며 그나마 선방했다. 한샘 관계자는 "리하우스는 부엌, 바스, 수납 등 핵심 상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판매비중을 확대해 부문 리모델링 공사 수요를 공략하는 동시에 수익성 개선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며 "홈퍼니싱의 경우 중고가 위주로 핵심 상품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고 패키지 상품 구매 유도 등을 통해 추가 성장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샘은 주택시장 침체 등 호의적이지 않은 외부 상황에서도 올해 추가 성장 모멘텀 발굴과 안정적인 이익 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고수의 핵심 상품 라인업 및 경쟁력 강화 ▲시공 운영체계 개선을 통한 품질과 효율성 증대 ▲온오프라인 오픈 채널 구현 ▲구매 및 물류 효율화를 통한 원가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김유진 대표는 지난 22일 서울 상업동 사옥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비우호적 시장환경의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 전 부문에 대한 구조적 혁신을 진행해왔다"며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를 시현해 성장 모멘텀을 발현하고, 향후에도 핵심사업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가구업계 전체가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선두 업체인 한샘이 지난해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선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불확실성이 여전한 올해엔 실적이 어떻게 나타날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전했다.

한편 코로나 팬데믹 시절 반사이익으로 2021년 7월 당시 15만원 근처까지 갔던 한샘 주가는 현재 4만8000원대까지 하락한 상태다. /김승호 기자 bada@

포스코인터-이노백 등 5개팀, 동반성장 우수모델 선정

중기부 '윈윈 아너스' 기념패 수여

포스코인터내셔널-이노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복을만드는사람들, 롯데홈쇼핑-위니스트, 한국광해광업공단-넥스트온, 인천항만공사-넥스트이엔엠-씨케이유가 대기업(공공기관)·협력사간 '신 동반성장 우수모델'에 뽑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2기 윈윈 아너스 기념패 수여식'을 열고 '윈윈 아너스' 사례로 선정된 대기업·공공기관과 대표 협력 중소기업에 기념패를 수여했다.

'윈윈 아너스'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일방적·시혜적으로 진행되는 상생활동을 넘어 중소기업 등과 윈윈으로 서로 이익을 얻는 상호 윈윈형 동반성장 활동에 대해 중기부가 선정한 우수 사례다.

선정 기업이나 기관에게는 동반성장 평가 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2년 면제, 동반성장 관련 정부포상 우대, 기념패 수여 등 다양한 혜택이 돌아간다.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이노백은 바이오 분야 신시장 진출, 해외 판로 개척에서 서로 힘을 모았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1억원의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을 통해 이노백과 해외

공동마케팅을 진행하고, 베트남무역법인을 활용해 수출관련 베트남 현지 이슈를 대응했다.

이노백은 베트남 시장에 판매 가능한 돼지 백신 제품을 개발, 생산해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한 품목허가를 취득했다.

이를 통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회사 최초로 백신의약품을 수출하는 성과를 얻었고, 이노백은 베트남의 '나베코'사와 지난해 7월 4만8500만 달러 규모의 초도계약을 체결하는 등 첫 해외 판로 개척에 성공했다.

aT와 복을만드는사람들은 우리쌀로 만든 냉동감밥을 해외에 수출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다. /김승호 기자

반도체 수출 증가에 기업 체감경기 '반등'

한은, 이달 BSI 69로 1p 상승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3개월만에 상승했다. 반도체 수출이 살아나면서 전자·영상·통신장비 관련 대기업들의 제조업 현황 실적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이달 전체 산업 업황실적 BSI는 69로 전월보다 1p 상승하며 3개월 만에 반등했다.

BSI는 기업의 경기 인식을 조사한 지표다. 100을 웃돌면 업황이 좋다고 응답한 기업이, 100을 밑돌면 업황이 나쁘다고 답한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이달 제조업 업황 BSI는 전월보다 1p 오른 71로 집계됐다. 건설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감소 및 중국발 철강 공급 과잉으로 제품가격이 하락하면서 1차 금속이 9p 내렸지만, 반도체 수출 증가에 힘입은 업황개선으로 전자·영상·통신장비가 14p 올랐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중심으로 수주가 늘어나며 기타 기계·장비도 3p 상승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전월보다 3p 오른 77을, 중소기업은 전월과 동일한 65로 집계됐다. 기업 형태별로는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은 나란히 2p씩 오르면서 각각 75, 70을 기록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내달부터 中企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21.5만개 기업, 연간 194억 이상 감면 효과

고용부·금감원 수수료체계 개편
적립금 많을수록 수수료율 낮춰
디폴트옵션 IRP 계좌 손익 연계
수익률 부진하면 수수료 낮아져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은 다음달부터 새로운 수수료 부과 체계에 따라 퇴직연금 수수료가 줄어든다. 각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 운용 수익률이 부진할 경우 수수료를 덜 받는 성과연동 구조도 갖출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 강도와 관계없이 적립금이 많을수록 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하는 현 체계를 합리화하는 것이 개편 내용 골자다. 중소기업 등에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IRP 계좌에는 운용 손익이 연계되며, 제공한 업무에 따른 비용이 수수료 산정에 고려된다.

이는 다음달 1일부터 모든 퇴직연금사업자(4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새로운 수수료 부과 체계의 주요 내용은 총 3가지다. 먼저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등에 실질적으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적립금이 클수록 더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현재 구조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수수료 부담이 컸다. 이를 고려해 일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제공하던 감면 혜택을 모든 금융기관이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할인율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한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등이 금융기관에 할인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금융기관은 고객 편의 및 할인 효과 극대화 등을 위해 이미 각사의 퇴직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 등에는 사전 전산 작업 등을 통해 다음 달 1일부

터 할인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편을 통해 약 21만 5000개 기업에 대해 연간 약 194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금융기관은 적립금 운용 손익을 고려해 수익률이 부진하면 수수료를 덜 받는 성과연동 구조를 갖추게 된다. 적립금 유치경쟁에만 치중하던 퇴직연금 시장에 금융기관간 성과 경쟁을 촉진하고 책임성을 강화해 수익률을 높일 것이라는 것이다.

목표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들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수수료가 증가하지 않도록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또한 목표수익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보다 수수료율을 할인할 계획이다. 더불어 비대면 IRP 계좌개설 등을 통해 이미 수수료율이 0%인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제

공한 업무의 종류와 그 비용을 고려해 수수료를 받는다. 업무별 내용을 세분화해 수수료율을 차등(인하) 적용함에 따라 연간 약 106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인터넷·모바일 거래 비중이 50% 이상일 경우 운용관리 수수료를 5% 할인하고, 적립·운용 단계보다 업무량이 줄어드는 연금수령 단계에 선 수수료를 50% 할인하는 등의 방식이다.

김준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수수료 부과체계 개편은 그 동안 가입고객 확보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에만 치중해온 퇴직연금 시장의 영업 행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수료 인가가 근로자와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고, 금융기관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입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장애인가용공단

경계선지능 청년
진로설계 돕는다

경계선지능 청년의 진로 설계와 취업 연계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에 8개 기관이 힘을 모은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27일 현대차정몽구재단 온드롭소사이 어티 온소(ONSO) 스퀘어에서 경계선지능 청년, 부모님과 함께 토크콘서트를 갖고, '경계선지능 청년의 일 역량 강화훈련 및 일경험 시범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는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을 비롯해,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폴리텍,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8개 기관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들은 향후 경계선지능 청년 중 진로 탐색을 희망하는 미취업 청년을 발굴해 일 역량 강화 훈련과 일경험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 및 연구에 참여한다.

고용개발원은 적절한 고용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계선지능 청년을 위해 '진로성숙도검사', '구직육구진단검사', '직업흥미 및 적성검사', '장애인가용서비스 다양성 검사' 등을 활용해 진로설계 컨설팅을 실시하고 직업 훈련과 일경험을 통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한 경계선지능 청년들에게는 정보기술(IT) 관련 기업 등 다양한 사업체에서의 일경험과 취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안정적인 직장 정착을 위해 직무지도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자연자본 공시, 기업의 생존·성장 핵심 열쇠”

환경부 1차 자연자본 공시 토론회
임상준 차관 “기업 역량강화 지원”

국제사회의 '자연자본 공시' 의무화 논의가 확산함에 따라, 정부가 생물다양성과 관련해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을 새로 짚는 방침을 세웠다. 자연자본 공시란 '기업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의존도' 등을 평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 세계자연보전연맹과 함께 서울 용산구 모처에서 '제1차 자연자본 공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 정부는 자연자본 공시 도입 등 생물다양성 손실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산업계와 공유했다. 또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특히, 국내에서 선제적으로 자연자본 공시를 대비해 온 신한금융지주와 EY한영회계법인의 경우, 공시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사항을 비롯해 직접 체험했던 애로사항 등



정부 관계자 등이 27일 서울 용산의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개최된 '제1차 자연자본공시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환경부

을 참석 기업들에 소개했다.

국제기구 등은 해의 진행사항 등을 소개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자연친화적 경영활동 이행방안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생물다양성 경영을 위한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지원 체계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 2022년 12월 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제도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뤄진 바 있다. 작년 9월 유엔(UN) 산

하 자연자본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NFD)에서 공시 관련 지침서를 공표하는 등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에 발 빠른 대응을 위해 이달 6일 산업계, 회계·법무법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연자본 공시 협의체'를 발족한 바 있다. 이 협의체는 △국제동향 및 정보 공유 △지침서(가이드라인) 및 시범 보고

서 작성 △실무자 교육 및 자문 등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전통적 이윤 추구 개념만으로는 기업 경영이 불가능한 시대를 맞고 있다"며 "기후 공시에 이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자연자본 공시도 기업의 생존과 성장의 핵심 열쇠라는 인식 아래,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농식품부, 납품단가 낮춰 계란 값 잡는다

할당관세로 닭고기값도 안정화

농림축산식품부가 27일 계란 가격을 연중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납품단가 할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닭고기 역시 할당관세 적용 등을 통해 수입·국내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계란 소비량과 생산량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생산자단체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계란 소비량 증가에 대응해 계란 공급량을 확대해 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철저한 방역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최소화, 생산자 단체와 협력을 통한 공급량 확대, 납품단가 인하 지원 등으로 최근 계란과 닭고기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저렴한 단백질 공급원인 계란 가격을 연중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생산 관리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납품단가

할인지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생산자 단체와 협의해 이달 7일부터 정부지원금과 계란자조금을 활용해 대형마트, 중소형마트에 납품하는 계란 특란 30구의 도매가격을 1000원 인하해 공급하고 있다. 여기에 대형마트의 자체 추가 할인행사까지 더해져 3월 중순 계란 소비자가격은 특란 30구 기준 6168원으로 상승 6534원에 비해 5.6% 내렸다는 설명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계란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4.9% 늘어났고, 올해 1월에는 대

형마트의 할인행사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12.9% 증가했다.

닭고기의 경우,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종계 폐사,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종계 살처분 등으로 공급 감소가 우려된 바 있다. 정부는 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해 8월 이후 종란 529만개를 수입해 공급하고, 종계 사육기간 연장 등 선제적인 조치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기준 닭고기 공급량이 6400여만 마리로, 전년동월 대비 1.9% 증가했다. 또 할당관세를 적용해 이달 말까지 닭고기 3만 톤을 수입해 공급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어촌공사

지하수·지질 기술
농어업인 지원 강화

한국농어촌공사는 'KRC 지하수지질 기술나눔센터'를 운영해 농어업인과 지자체 대상 기술지원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KRC 지하수지질 기술나눔센터'는 지하수·지질 분야별 전문 기술지원을 비롯해 법·제도 검토, 기술교육 등 다양한 기술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지하수 시설물 점검 ▲저수지 누수·안전점검 ▲지질·암질 조사 그라우팅 설계·시공·공감 등 공법 적정성 검토 ▲지하수영양조사 등 검토·심의 ▲지하수관측망 설치·운영지원 ▲지하수·토양 오염 시 긴급방재 등이 있다.

전국 규모의 지하수·지질 분야의 전문인력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공사는 2007년 '지하수 기술지원단'을 발족한 이래 지금까지 3만8000여건의 기술지원 활동을 해왔다. 작년부터는 지하수·지질 분야 전문인력 167명으로 구성된 'KRC 지하수지질 기술나눔센터'를 조직해 본사·농어촌연구원·9개 지역본부 단위별 '기술나눔반'을 편성해 신속한 기술지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신하은 기자 godhe@

CARM 국가첨단전략기술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포럼

2024.04.26(금)

13:00~17:00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

-연사-



Robert Coppes
University Medical
Center Groningen



Ryuichi Okamoto
Tokyo Medical and
Dental University
(TMDU)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임승원
현 애니젠 고문
전 한국IF협의회 상근부회장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장



최미혜
한국거래소
차장



정형구
미래어드생명과학
이사

■ 행사개요

- **행사명:** CARM 국가첨단전략기술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포럼
- **일시:** 2024년 4월26일(금) 13:00~17:00
- **장소:**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1층)
- **주최:** (사)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 **후원:** 충청북도
- **등록:** 운영사무국 M&C기획 02-721-9818 선착순, 사전접수만 입장 가능

포럼에 참가한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Registration

■ 프로그램

구분	시간	프로그램
참가등록	12:30~13:30	사전등록 (13:00~13:30 MP Tea 타임)
개회 및 축사	13:30~14:00	이득주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회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김명규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섹션1	14:00~15:40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연구 및 현황 강연1: Robert Coppes 교수 "Organoids for Post-Radiotherapy Regeneration of Salivary Glands, the RESTART study" 강연2: Ryuichi Okamoto 교수 "Clinical application of patient-derived organoids" 강연3: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의 현황과 전망" 강연4: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장 "인간전분화능 줄기세포 유래 오가노이드 원천 및 활용 기술 개발"
브레이크타임	15:40~15:55	커피 브레이크 및 자유네트워킹
섹션2	15:55~17:00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시장과 전망 정형구 미래어드생명과학 이사 "재생치료제 동향 및 오가노이드의 역할" 임승원 전 한국IF협의회 상근부회장 "바이오벤처기업의 IPO 전략" 최미혜 한국거래소 차장 "찾아가는 기술특례 상장 설명"
폐회	17:00	정부 관계 부처 및 금융기관 전문가

공공배달앱 '대구로' 소비자·소상공인 모두에게 더 '이득'

대구시, C사 배달 플랫폼과 비교 소비자-소폭, 소상공인-12% 저렴 대구로 출시 이후 수수료 87억 절감



지난 2021년 8월 출시된 대구시의 독자적 플랫폼 '대구로'가 정산 속도, 배달비 등에서 민간 배달앱보다 더 나은 혜택을 서비스 이용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주고 있다는 대구시의 자체 분석이 나왔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주 민간 배달 플랫폼 C사가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으나, 대구시가 이를 상세히 분석한 결과 '대구로'가 C사보다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혜택인 것

로 나타났다.

최근 C사가 발표한 무료 배달 서비스는 멤버십 회원에게 제공되던 메뉴 가격의 5~10% 할인혜택을 대신하는 것으로, 여러 집을 동시에 배달하는 묶음 배달 서비스인 '세이브배달'에만 적용되며 5월 31일까지는 기존의 할인과 무료 배달 중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

대구시가 위와 같은 C사의 정책을 소비자·소상공인 양측 면에서 '대구로'와 비교한 결과, 2만2000원 음식

을 '대구로'에서 주문할 경우 소비자는 C사 대비 소폭 저렴한 금액으로 주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은 C사 대비 주문 1건당 약 2000원(C사 정산 금액의 12.4%)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대구로'는 출시 이후 올해 2월 말까지 민간 배달앱 대비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최소 87억원 이상 절감했으며, '대구로택시'의 경우도 택시 택시 호출앱 대비 저렴한 수수료(1콜당 200원, 매월 3만원 한도)로 택시 기사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한편, '대구로'는 시민들의 착한 소비로 절감한 수수료를 다시 할인 혜택을 돌려주는 '착한매장'을 운영 중이며, 지난 2월 기준 965개 가맹점이 착한매장으로 등록돼 있다.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대구로'는 지난 2월 기준 회원 수 52만7000명을 돌파해 대구 시민 5명 중 1명 이상이 '대구로'를 가입했고, 누적 배달주문 618만5000건, 가맹점 1만8000개를 기록하는 등 민간 플랫폼의 독과점에 맞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민간 배달앱 독과점 3사(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가 전국적으로 전체 배달시장을 점유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대구로'는 월평균 배달주문 약 20만건을 수행해, 시민에게는 할인 혜택을, 소상공인에게는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며 지자체 공공앱 중 유일하게 건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구=김상복 기자 ksb8100@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나주시 외국인 근로자 입국 환영행사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25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환영 행사'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베트남에 이어 몽골 국적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둔 나주시 농촌 일손에 힘을 보탠다.

환영 행사엔 지난 2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몽골 아르헨가이주 바트첵겔군, 우기노르군 출신 외국인 계절근로자 95명, 본국 인솔자, 고용 농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환영식과 더불어 경찰서, 소방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준수사항 안내, 인권보호, 무단이탈방지 및 범죄예방, 소방안전교육을 병행했다. /나주(전남)=양수년 기자

고흥군,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에 11개 기업 입주

차세대발사체 개발 우선협상자에 한화어로 선정... 제조시설 건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26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우주산업 11개 기업과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입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한준 LH사장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한 8개 기업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2월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고흥 국가산업단지 예타면제 추진' 발표와 3월 14일 스무번째 민생토론회 시 대통령 지시 사항인 '고흥 국가산단 예타면제 적극 추진' 후속 조치로서 기업수요를 확정하고 국가산업단지 예타면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취지다.



26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우주산업 11개 기업과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입주 협약을 체결했다. /고흥군

특히 이날 협약을 체결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으며, 앞으로 국가산업단지 내 발사체 핵심 구성품의 제조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노스페이스 등 스타트업

들은 소형발사체 제작 및 연구개발, 비즈로 넥스텍은 발사체 엔진 개발 등을 수행하며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11개 기업이 발사체 산업 생태계 구축에 큰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흥 신규 국가산업단지가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중

발사체 특구로서 한 축을 담당해, 대한민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우주발사체 산업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예타면제 추진으로 국가산단 조기 조성하고 함께 민간발사장 등 우주발사체 핵심 기반시설 구축 또한 빨라질 것"이라며, "고흥군이 우주산업의 전진기지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는 2031년까지 1조 6000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그중 핵심사업인 국가산업단지는 2030년까지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일원에 52만 평 규모로 조성되며, 고흥군에서는 조속한 예타면제 추진을 위해 기업 수요확보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고흥(전남)=양수년 기자 ysn6313@

순천시 내달 1일 순천만국가정원 개막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오는 4월 1일 10시, 순천만국가정원 개막식을 스페이스 허브(남문광장)에서 개최한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로 전국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된 순천시는 국가정원의 우수한 아날로그적 요소 위에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를 더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디지털적 요소를 덧입히는 작업을 완료했다. 이번 개막은 대한민국 제1호 정원도시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순천시가 정원에 AI와 문화콘텐츠를 더해 정원문화산업도시로 새로운 도약을 선포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다.

개막식 볼거리 역시 풍성하다.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이라는 주제로 24개 읍면동 대표 캐릭터를 활용한 '애니벤처스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정원문화산업도시 선포식, 어린이·청소년·청년 연합 퍼포먼스가 개막식 참석자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만들 전망이다. /순천(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부산 기장군 '기장 스카이워크' 조성 첫 발

사업 대상지 수변공원 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착수

부산 기장군은 '기장 스카이워크' 조성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 대상지를 약 9만 4540㎡ 규모의 수변공원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에 착수한다.

스카이워크란 해안가나 산 정상 등에 설치한 구조물로, 빼어난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하늘을 걷는 듯한 스틸을 느낄 수 있어 지역의 주요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새로운 볼거리 제공과 관광명소 개발을 위해 전국 지자체단체가 스카이워크 조성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장군이 추진하는 '기장 스카이워크'는 기장을 대변할 인근 해안로를 따라 전망대와 산책데크, 주차장 등으로 조성된다.

부지 인근에는 봉대산과 동해가 맞

닿는 연해안과 함께 기장수산물체험 홍보센터, 월드컵 기념 등대공원, 오시리아관광단지 등이 가까워 스카이워크 조성 시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긍정적인 관광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군은 이번 용역으로 차질 없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기장 스카이워크' 조성 사업을 구체화해 조성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기장 스카이워크를 온 가족이 즐기는 복합 액티비티 시설로 구상,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며 "또 기장 스카이워크 일원을 천혜의 자연경관과 잘 어울리는 수변공원으로 조성해 전국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기장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내년 완도서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 총회'

국제조정이사회서 만장일치 선정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내년 6월에 열릴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 총회' 개최지로 선정됐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월 23일 벨기에 다머(Damme)에서 열린 '2024년 상반기 슬로시티 국제조정이사회'에 20개국, 36명의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 총회' 개최 도시로 완도군이 만장일치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5년도 시장 총회는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완도군에서 개최된다. 국제슬로시티연맹은 전통과 자연을 보존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33개국, 296개 도시(한국 17개 도시)가 가입돼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국제슬로시티연맹의 주요 행사가 우리 군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해양치유 등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

하며 웰니스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대표 슬로시티 완도의 매력과 위상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2025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 총회'에는 유럽, 북미, 아시아 등의 시장 및 슬로시티 네트워크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국가별 네트워크 동향과 이슈 발표, 정책 공유,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2007년 완도군 청산도가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됐으며, 2018년도에는 세 번째 인증과 함께 군 전역이 슬로시티로 지정돼 우리나라 대표 슬로시티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6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국제 슬로시티 우수 사례 콘테스트'에서는 해양자원을 활용해 건강을 증진하는 완도군의 특화 산업인 '해양치유' 정책이 최고상인 '오렌지 달팽이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9h7505@

고성군 청년 일자리사업 참여사 모집

경남 고성군이 청년들을 정착시키기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6일간 '2024년 고성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로 진행되는 '고성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해 자선 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 창출을 돕고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특히 그동안 중앙부처가 추진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는 달리, 고성군 자체 예산으로 추진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청년을 고용한 지역 업체에는 월 100만 원의 인건비 지원금을 지급하고 해당 업체에서 근무한 청년에게는 근무 장려금 240만 원을 지급한다. /고성(경남)=이도식 기자

식품 키우고 부진땀 과감히 정리... 대형마트 '선택과 집중'

홈플러스 화성에 '메가푸드마켓' '세상의 모든 맛' 테마 2030 저격

롯데마트 은평에 '그랑 그로서리' 식품비중 90%... 고객 15% 늘어

이마트 연수점·킨텍스점 재단장 그로서리+임대 결합 '몰타입' 오픈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지난해 5월 연수점을 방문해 매장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신세계

국내 대형마트들이 경제불황이 지속되는 위기 상황에 대한 돌파 방안으로 '점포 변화'카드를 꺼내들었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국내 대형마트들은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점포 근살 빼기에 돌입했다.

실적이 좋지 않은 점포는 빠르게 정리를 하거나 트렌드에 맞는 식품군을 늘리는 등 대형마트 본업의 강점을 내세울 수 있는 전략을 접목하고 있는 것이다. 또 식품 쪽의 덩치를 키우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대형마트들은 각 점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하려는 모양새다. 특히 점포 변화와 본업인 식품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홈플러스는 오는 28일 화성시 반송동 소재의 화성동탄점점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25호점으로 리뉴얼 오픈한다. 홈플러스는 2030세대를 타겟으로 한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리뉴얼을 통해 '세상 모든 맛'을 테마로 다양

하고 색다른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식품 매장은 '다이닝 스트리트', '라면 박물관', '몽블랑제' 베이커리를 비롯해 즉석식품 코너 '홈플러스 델리' 등 간편하고 다채로운 먹거리를 선보인다. 유아식을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해 고품질의 고기를 제공하는 '더 미트마켓'과 '스테이크 하우스'도 있다. 또한 건강한 먹거리를 원하는 고객들을 위한 '베터 초이스' 코너도 마련했다.

비식품 매장에는 약 500평 규모의 대규모 생활용품점 '다이소'가 입점해 고객들의 쇼핑 편의성을 한층 더 높였다. 또 완구 체험공간 '토이 어드벤처 랜드'를 구성해 아동은 물론, 키덜트족까지 맘껏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홈플러스는 현재 24개 점포의 식품

매장을 '메가푸드마켓'으로 리뉴얼했는데 오픈 1년 차에 평균 20%대 매출 신장률을 기록한 바 있다.

롯데마트의 경우 지난 연말 기존 롯데마트 은평점을 '그랑 그로서리(Grand Grocery)'로 재개장 해 매장 내 식품 대 비식품의 비중을 90대 10로 끌어올린 전략을 도입했다. 식료품 전문 매장으로 재개장한 그랑그로서리 점은 비식품 규모를 대폭 줄이고 스마트팜 등 식품의 다양성을 늘린 게 눈에 띈다.

실제 오픈 이후 이달 중순까지 방문 고객, 매출이 각각 전년 대비 15%, 10% 늘었다. 롯데마트는 추가 점포를 발굴할 방침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그랑 그로서리 은평점은 오프라인 매장의 방향성을 제시한 차세대 매장"이라며 "향후에도

그랑 그로서리만의 차별화 먹거리를 꾸준히 선보여 우수한 성과를 이어가는 동시에 롯데마트를 대표하는 매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마트는 지난해 3월 인천 연수점과 고양 킨텍스점을 그로서리와 임대매장이 결합된 몰타입 미래형 매장으로 재단장해 오픈했다. 당시 이마트 측은 "신규 출점 매장도 고객들이 장기간 머물며 소비할 수 있는 미래형 매장으로 기획해 오프라인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마트는 올해 신규 점포 다섯 곳 부지 확보를 목표로 외형확장에 속력을 낸다. 이마트의 신규점포는 '그로서리 전문 하드 디스카운트 스토어'다. 그로서리 전문 하드 디스카운트 스토어는 기존 대형마트가 취급하던 의류, 생활용품, 가전 등은 모두 털어내고 오직 먹거리로만 승부하는 점포다.

'하드 디스카운트 스토어'는 식료품의 가격, 성능 등을 직접 비교하고 구입할 수 있어 가성비와 효율적인 면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마트의 '노브랜드' 매장이 이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마트는 신규 점포에 식료품을 가장 싸게 판매할 수 있는 유통라인을 구축해 새 점포에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는 우선 올해 용인 죽전점을 새로운 '식품 특화 매장'으로 리뉴얼한다. /최빛나 기자 vtna@metroseoul.co.kr

롯데칠성 펩시 제로 슈거 '파인애플향' 출시

롯데칠성음료가 달콤하고 상큼한 파인애플향을 담은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 '펩시 제로 슈거 파인애플향(사진)'을 선보인다. 27일 밝혔다.



롯데칠성음료는 '펩시 제로 슈거'의 지속적인 인기와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음료를 통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이번 신제품을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품은 달콤하고 상큼한 파인애플향과 함께 톡톡 터지는 탄산의 상쾌함을 제로 슈거 및 제로 칼로리로 부담없이 가볍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패키지는 기존 펩시 제로 슈거 제품과 동일하게 검은색이 적용되어 젊고 세련된 이미지를 강조하였고, 파인애플향이 더해진 것을 직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라벨과 문구에 파인애플을 연상시키는 컬러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펩시 제로 슈거 파인애플향은 전국 대형마트, 편의점은 물론 롯데칠성음료 공식 직영몰 '칠성몰' 등 온라인 판매처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한편, 롯데칠성음료는 2021년초 '칠성사이다 제로', '펩시 제로 슈거'를 선보인 후 '탐스 제로', '핫식스 제로', '밀키스 제로' 등 제로 칼로리 제품을 연이어 출시했다. /신원선 기자

롯데홈쇼핑, TV 넘어 유튜브·SNS 판매전략 통했다

'멀티채널 상품 프로바이더' 전략 짜양 출연 '함박 스테이크' 선보여 두달 만에 누적주문 3만세트 기록

롯데홈쇼핑은 27일 TV홈쇼핑 틀을 깨는 과감한 시도로 방송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업계 최초로 SNS숏폼 형식의 최단시간 타임세일 방송을 선보이거나 인플루언서를 게스트로 섭외해 TV홈쇼핑 생방송을 라이브 커머스와 공식 유튜브 채널 '롯데TV'에 동시 송출하는 등 방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09년 이후 올해까지 15년째를 맞은 롯데홈쇼핑의 대표 리빙 프로그램 '최유라쇼'는 티커머스를 포함한 17개 홈쇼핑 채널 중 진행자 이름을 내건 최장수 프로그램이다. 최유라씨의 상품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공감, 소통을 기반



최유라쇼x짜양 방송 현장. /롯데홈쇼핑

으로 한 진행으로 홈쇼핑 주요 고객층인 주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지난 21일 '최유라쇼'에 구독자 900만 명을 보유한 최고의 먹방 유튜버 중에 한명인 '짜양'이 출연해 '함박 스테이크' 선보였다. 이는 TV홈쇼핑에 국한하지 않고 유튜브, SNS 등으로 판매채널을 다각화하는 '멀티채널 상품 프로바이더' 전략이다.

TV, 라이브커머스, 유튜브에서 동시 판매해 론칭 방송에서 준비한 물량이 5500세트가 완판되는 등 두 달 만에 누적 주문건수 3만 세트를 기록했다.

이날 방송은 5060세대 주부들에게 인기가 많은 홈쇼핑 업계 최고의 프로그램 '최유라쇼'와 2030세대에게 인기가 많은 최고의 먹방 유튜버 짜양이 만나 세대와 분야가 다른 최고와 최고가

시너지 효과를 이루며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4일 300초 동안 생수, 화장지, 식재료 등 생필품을 판매하는 업계 최단시간 타임세일 방송 '300초 특가'를 론칭했다. 신규 프로그램 '쇼파르타 300'은 '300초 동안 진행되는 쇼파르타 쇼핑'을 콘셉트로 생필품, 지역 특산물 등을 업계 최저가 수준으로 선보였다. '30초 먹방', 'ASMR' 등 SNS 숏폼 형식과 콘셉트로 재미 요소를 통해 방송 주목도를 높였다. 또, 3만원 이하의 업계 최저가 수준에 무료배송 서비스까지 선보여 고통가 시대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 느끼는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최빛나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CJ제일제당 '비비고', 2024 최고 미식 행사서 K-푸드 알려

2024 50 베스트 레스토랑 참여

CJ제일제당 비비고가 유망 한식 셰프 육성 프로젝트인 '취진케이(Cuisine K)' 소속 영세프들과 함께 아시아 최고 권위의 미식 행사에 참가해 K-푸드의 위상을 드높였다.

CJ제일제당 비비고는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진행된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2024' 시상식에 공식 파트너로 참여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2024'는 '미식계의 아카데미'라 불리는 시상식으로 세계적인 스타 셰프, 음식기자,

외식업자 등 전문가 300여명이 투표를 통해 아시아 지역 최고 레스토랑 50위를 발표하는 행사다. 2013년 처음 개최된 이래 서울에서 열린 것은 처음으로 미식 업계 관계자들 800여 명이 참석해 교류의 장을 가졌다.

비비고는 시상식의 시작을 환영하는

행사 부스 운영을 통해 한국의 젊은 미식 트렌드를 소개했다. 취진케이 영세프들이 직접 비비고 대표제품을 활용해 개발한 'K-푸드 케이터링' 메뉴 4종을 선보여 현장에서 큰 호평을 얻었다. ▲ 병아리 콩으로 만든 두부와 비비고 김치 ▲ 연어알, 세모가시리 등으로 산뜻함을 살린 비비고 김스낵 등, 전 세계인에게 인기 있는 한식 메뉴를 젊은 감각으로 재해석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호가든 여의도 봄꽃축제 주류 단독 후원사

호가든이 벚꽃 시즌을 맞아 '2024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에 주류 단독 후원사로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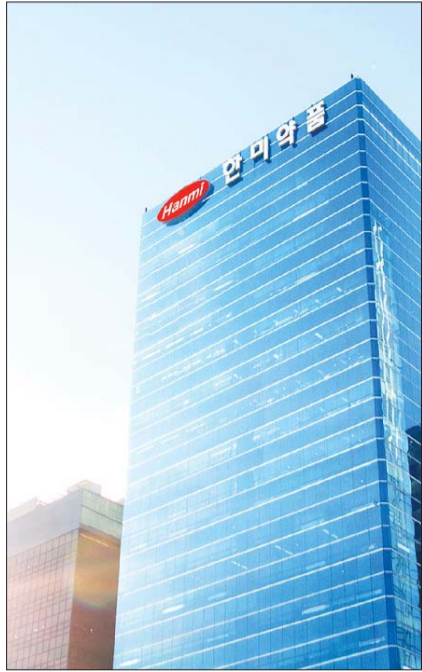
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여의도 봄꽃축제'는 서울의 대표 벚꽃축제로 오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영등포구 여의서로 일대에서 열린다. 호가든은 주류 단독 후원사로 참여해 봄 나들이를 즐기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라인업의 호가든 맥주와 다채로운 이벤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호가든은 축제 현장 곳곳에 다양한 즐길거리를 마련해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벚꽃길이 시작되는 지점에 '벚꽃사진관' 콘셉트의 포토존을 운영한다. '호가든 로제'의 상큼한 핑크빛을 담은 구조물을 활용해 벚꽃나무를 배경으로 사진촬영을 할 수 있다. 촬영한 사진을 지정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업로드하는 방문객에게는 호가든 비어버스 방문 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한다.

벚꽃길을 따라가다 보면 만날 수 있는 '호가든 비어버스'에서는 '호가든 로제', '호가든 오리지널', '호가든 애플'을 선보인다. 호가든 맥주를 구매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GS25 및 축제 현장 인근 호가든 판매업장 연계 프로모션도 전개한다. /신원선 기자

한미약품 '모녀' 손 든 국민연금... 소액주주 표심에 달렸다

경영권 분쟁 속 대주주 표심 확정
국민연금 주총 안전사 모녀 지지
양측 현재 우호지분 차이 2% 점전



한미약품 본사 전경. /한미약품그룹

한미약품그룹의 송영숙·임주현 모녀와 임종윤·임종훈 형제 간 경영권 분쟁 속에서 대주주들이 표심을 확정해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모녀 측과 형제 측의 지분 점전이 치열해 주총에서 예고된 표대결의 향방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지난 26일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의 안전을 심사하고 한미사이언스 현 이사회인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 안전을 지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수탁위는 ▲사내이사 임주현·이우현 각 선임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최인영 선임의 건 ▲사외이사 박경진·서정모·김하일 각 선임의 건 ▲감사위원 박경진·서정모 각 선임의 건 등에 '찬성'하고 이밖에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이 주주 제안으로 추천한 신규 이사 5명 선임 안전에는 전부 반대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초 업계에서는 한미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내놓을 가능성을 낮게 내다봤다. 다만 한미사이언스 현 이사회 측 안전이 장기적인 주주 가치 제

고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국민연금 수탁위 측의 설명이다. 국민연금은 한미사이언스 지분 7.66%를 보유하고 있다.

이같은 국민연금의 지지로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이 42.66%의 지분을 확보하며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과의 경영권 분쟁 판도를 뒤집고 있다. 현재 양측의 우호 지분 차이는 2% 정도다.

기존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과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이 특수관계자 등을 통해 확보한 지분은 각각 35%와 28.42%였다.

이어 한미약품 창업주(故) 임성기

회장의 고교 후배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개인 최대주주로서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을 공개 지지해 형제 측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신동국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12.15%로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은 신동국 회장을 우군으로 끌어들여 40.57%의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같은 날 법원에서도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이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이 정당성을 얻게 됐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특히 한미약품그룹은 OCI그룹과 통합 후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주주 친화 정책을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미약품그룹은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사장(전략기획실장)을 그룹 경영을 총괄하는 부회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임주현 한미약품그룹 부회장은 "자사주 매입 후 소각 등 보다 공격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채택해 반드시 실행하겠다"며 "주주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주주의 '오버행' 이슈가 이번 통합으로 해소되는 만큼 주가 상승을 막는 큰 장애물이 치워지게 됐다"고 말했다.

또 임주현 부회장은 최근 OCI그룹과 협의,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예약해 3년간 매각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밝히

기도 했다. 임 부회장의 이같은 주주 가치 제고를 경영 제1원칙으로 삼겠다는 의지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서도 확인됐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지난 11일 주총 안전과는 별도로 회사의 주주친화 정책을 보고받고 승인함으로써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한미사이언스의 핵심 정책으로 확정한다.

한편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도 주주 가치 제고에 대한 의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무엇보다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은 재판부의 가처분 결정문 중 '이 사건 신주발행 등에 관한 이사진의 경영판단의 합리성과 적정성에 대해서는 향후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는 부분을 짚었다.

한미 오너가의 경영권을 비롯해 신규 이사 선임 안전 등은 향후 한미약품그룹의 미래와 주주 가치를 좌우하는 사안으로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 형제 측의 입장이다.

결국 업계는 마지막 승부는 한미사이언스 지분 20.5%를 보유한 소액주주들의 표심에 달렸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양측 모두 소액주주 표심을 잡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종합 바디케어 브랜드 사위메이트의 바디워시 제품. /애경산업

애경산업 美 생활용품 시장 인지도 ↑ 지난해 매출 82% 성장

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의 생활용품 브랜드가 미국 시장에서 인지도를 올리고 있다.

애경산업은 2023년 자사의 생활용품 사업이 미국 시장에서 전년 대비 82%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TJX 컴퍼니스에 납품한 매출은 2023년 기준으로 2022년 대비 80% 증가했다.

애경산업은 앞서 2020년 미국 대형 유통사인 TJX 컴퍼니스와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사위메이트, 케라시스 등 애경산업 대표 생활용품 브랜드가 미국 오프라인 시장에 공식 진출하게 됐다.

애경산업은 미국 시장에서 사위메이트 바디워시 제품이 브랜드 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청하 기자

롯데바이오, 미래 바이오인재 키운다

미국 시라큐스대학교와 공동 협약
바이오인재 위한 입문교육과정 개발

롯데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 산업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명문 대학과 협업에 나선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시라큐스대학교와 산학협력 교육 프로그램 공동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라큐스대학교는 1870년 개교한 미국 주요 명문 사립대학 중 한 곳이다. 총 13개의 단과 대학으로 구성돼 있

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등이 졸업한 학교로 알려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시라큐스대 재학생을 비롯해 국적, 성별,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고 바이오 산업에 관심 있는 전 세계 예비 바이오 인재를 위한 입문교육과정을 개발한다.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현장과 인재를 채용하는 산업체의 간극을 좁히는 것을 목표로 세부 내용을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산업 현장의 경험이 풍부한 자사 연구원들이 직

접 교안 작성 및 강의안 검수 등에 참여, 단순 이론에 치우치지 않고 현장 특성, 실무경험, 산업 현황 등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이번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으로 시라큐스 대학교와 중장기적 산학협력을 이어간다. 시라큐스 대학교는 졸업생들의 바이오 업계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인력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해외 우수 인재 확보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청하 기자



지난 25일 미국 뉴욕에 위치한 시라큐스 대학교에서 이원직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와 켈트 시버루드 시라큐스 대학교 총장, 신유열 롯데바이오로직스 글로벌전략실장(오른쪽부터)이 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바이오로직스

이랜드재단, '행복한 나눔식탁' 전개

다문화청소년에 비전·진로 수립

이랜드재단은 지난 23일 경기도 포천하랑센터에서 이랜드팜앤피드 오피스, 한식 프랜차이즈 기업 본아이에프와 함께 다문화가정과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행복한 나눔식탁'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랜드재단 이재욱 본부장, 이랜드팜앤피드 이제학 본부장, 본아이에프 홍은아 과장을 비롯한 임직원 봉사자와 다문화가정 및 청소년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행복한 나눔식탁은 이랜드재단이 지

난해부터 이랜드그룹 임직원과 비전 멘토링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비전과 진로 수립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시작한 공헌 활동이다.

이날 이랜드팜앤피드와 본아이에프는 외식·유통 부문의 직무 특강을 진행하며 다문화청소년과 상호소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아울러 예술리 시그니처 등심 스테이크, 봉골레 크림 파스타, 본아이에프의 소갈비찜, 미니 장조림 등을 식나눔으로 후원하고, 임직원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함께 음식을 조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종근당건강, '팔사 리프팅세럼' 홈쇼핑 선봬

종근당건강의 화장품 브랜드 '씨케이이디 개런티드'가 소비자와의 접점 확대에 나선다.

씨케이이디 개런티드는 '레티노콜라겐 저분자 300 팔사 리프팅세럼'을 신세계 홈쇼핑을 통해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품은 팔사와 세럼을 일체형으로 설계해 처진 눈꼬리, 입꼬리, 턱부위 3중 처짐 개선에 도움을 준다.

또 콜라겐 부스팅 특허성분 팔미토일트라이펩타이드-5, 연어샷 성분인 소듐디엔에이, 폴라겐하이드롤라이즈 드콜라겐추출물을 농축해 담았다.

씨케이이디 '팔사 리프팅세럼'은 첫 출시 이후 약 70만개의 판매고를 올리며 매출 100억원 이상을 돌파했다.

특히 15그램 탄력세럼부문 1등, 2023 대한민국 뷰티 브랜드 대상 리프팅 화장품 부문 대상, 2023 뷰티벨 슈퍼코스메틱 어워드 베스트 안티에이징 부문 1위 등 주요 뷰티 대상 3관왕을 수상하기도 했다.

종근당건강은 이번 신세계 홈쇼핑 진출을 기념해 단독 구성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청하 기자

동아제약 박카스D 박스 패키지 '종이 손잡이'로 변경

동아제약이 친환경 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동아제약은 피로회복제 박카스D 20병 제품의 플라스틱 손잡이를 종이 손잡이로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동아제약은 그동안 박카스D 20병 박스 포장에 폴리에틸렌 소재의 플라스틱 손잡이를 적용했다. 동아제약은 이번 종이 손잡이 교체로 연간 약 25톤 이상 플라스틱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롭게 도입한 종이 손잡이는 외부 시험 기관 및 동아제약 자체 분석을 통해 강도 테스트를 완료해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동아제약은 지난 2020년에도 박카스 비닐봉투를 재생 용지를 사용한 종이 봉투로 교체한 바 있다. /이청하 기자



박카스D 20병 박스 포장 '종이 손잡이'. /동아제약

내일을 위한 또 다른 도전

Green Transformation

한 발 앞서 미래를 마주하며,
에너지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해온 GS칼텍스는
ESG 경영을 기반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합니다.
우리 모두의 풍요로운 삶,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기존 사업에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저탄소 신사업을 발굴하며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혁신으로 에너지의 미래를 열다.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MR/CR 사업



수소/CCUS 사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모빌리티용 액화수소 생산/공급,
CCUS 청정수소 클러스터 등 구축



화이트 바이오 사업
기존 화석연료(원료)로 생산되는 제품을 대체하는
바이오연료, 바이오케미칼 사업 추진



I am
your
Energy





NH농협은행-서울경제진흥원, 스타트업 성장 지원
NH농협은행은 지난 26일 서울시 중구 소재 농협은행 본사에서 서울경제진흥원과 혁신기술 스타트업 발굴 및 성장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재호 농협은행 부행장(왼쪽)과 김용상 서울경제진흥원 사업부문 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은행



DGB금융그룹, '따뜻한 사회복지사 상' 수여
DGB금융그룹 DGB사회공헌재단은 서울 글래드호텔에서 개최된 '제18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에서 전국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DGB 따뜻한 사회복지사 상'을 수여했다고 27일 밝혔다. 성태문 DGB금융 그룹지속가능경영총괄 전무(왼쪽 두번째)와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DGB금융



현대트랜시스, 2024년 '파트너스 데이' 개최
현대트랜시스가 파트너사와 상생 협력을 강화한다. 27일 현대트랜시스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전날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서울에서 주요 파트너사 대표들을 초청해 2024년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했다. 현대트랜시스는 중장기 제품 양산 계획과 미래 발전 전략, 올해 중점 추진 사항 등을 파트너사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대트랜시스



소진공, 의류업 소공인 위한 '패션메이커허브' 개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의류제조 소상공인의 협업을 돕는 '패션메이커허브 소공인 코워킹 스페이스'를 열었다. 26일 서울 종로 '패션메이커허브 소공인 코워킹 스페이스' 개소식에서 박성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왼쪽 3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진공

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 자조기금 사업 5000만원 후원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조기금 사업 3개를 선정해 총 5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선정된 기관은 사단법인 제주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단법인 강원사회적경제연대, 평택협동사회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임팩트금융 생태계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이들은 평가순위에 따라 최대 2000만원에서 최소 1000만원을 지급받는다. 법률·회계·세무 등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도 제공된다. /원관희 기자 wkh20

SKT-KLPGA, AI 기반 '골프 영상 아카이브' 사업 추진

골프 방송영상에 데이터 결합
내달 4일 첫 AI 중계방송 실시

SK텔레콤이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와 AI(인공지능) 기반 골프 영상 아카이브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SKT의 에이닷과 SK브로드밴드의 Btv에서 골프 데이터 방송을 4월 론칭하면서 골프 방송의 선수 샷 영상에 데이터를 결합, 시청자가 선호 선수의 샷영상과 기록 및 과거 영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KLPGA 협회는 그동안 수작업으로 협회 소속 선수들의 영상과 기록을 결합한 아카이브 작업을 해왔는데, 이번에 SKT의 AI 미디어 기술을 협회의 영상 아카이브 사업에 도입하기로 했다.



(왼쪽부터)최형석 CNPS 사장, 김정태 KLPGA 회장, 김유석 SBS골프 사장, 김혁 SKT 미디어콘텐츠 담당이 MOU를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SKT

이에 골프 경기 관련 권리를 가지고 있는 KLPGA 협회와 골프 경기 중계권을 가지고 있는 SBS골프, 골프 경기의 공식 데이터를 제공하는 CNPS, AI 미디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SKT가 협력해 KLPGA 협회의 아카이브 구축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이번에 적용되는 AI 미디어 기술은 AI가 방송 중계 화면의 선수들의 동작과 스코어를 인식, 시작 시점과 끝나는 시점을 자동으로 편집하고 해당 영상의 데이터를 결합·저장하며 에이닷과 Btv 또는 골프 협회의 홈페이지 등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것이다.

LG생활건강, 울산 도심에 '새들의 공원' 만든다

오치골공원에 나무 1400그루 식재
탐사 프로그램 등 환경 캠페인 확대

LG생활건강이 조류 개체 수를 늘리기 위한 '새들의 공원'을 기획했다. LG생활건강은 지난 26일 울산 양정동 오치골공원에서 나무 1400그루를 심는 식재 행사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LG생활건강은 지역사회 관계자들과 함께 다양한 꽃과 열매를 맺는 교목과 관목을 심었다. 새들의 먹이가 되는 마가목, 벚나무, 화살나무 등을 오치골공원 곳곳에 식재하고 새들이 안전하게 번식할 수 있는 새집 20개와 모이통, 물통 등도 제작, 설치했다.



지난 26일 울산 양정동 오치골공원에서 LG생활건강 임직원과 울산 북구청, 울산 생명 의숲 등 지역사회 관계자 50여 명이 나무를 심고 있다.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은 향후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새들의 공원을 가꾸 나갈 수 있도록 '시민 과학자'와 '숲 해설가'를 양성하는 교육 과정도 지원한다. 아울러 공원을 찾는 지역 주민들

에게 새와 곤충, 식물 등을 설명하는 탐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생물 다양성의 가치를 알리는 환경 캠페인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철규 한솔제지 대표 'BBP 챌린지' 동참
(바이바이플라스틱)

한솔제지 한철규 대표이사(사진)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BBP) 챌린지'에 동참했다.

한철규 대표는 지난 21일 한솔제지 유튜브에 공개된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영상을 통해 플라스틱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상기시키고 생활 속 실천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나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종이제품 개발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CJ제일제당 연구소 그레고리 염소장의 지명으로 챌린지에 동참한 한 대표는 다음 참가자로 이복진 한국제지연합회 회장과 전광진 삼육식품 대표를 지목했다. /김승호 기자

SK이노, 'RoHS' 공인시험기관 자격 획득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국제표준)

계열사 생산·판매 제품 직접 시험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RoHS' 국제공인시험기관 자격을 인정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앞으로 계열 회사들이 생산·판매하는 관련 제품의 무해성을 직접 시험할 수 있게 됐다.

RoHS는 유럽연합(EU)이 지난 2006년 전기·전자제품에 납, 수은, 카드뮴 등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한 국제표준 지침이다.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은 이번에 RoHS 10개, 유해물질 관련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 구성원들이 RoHS 국제공인시험기관 자격 인증 획득을 소개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14개 규격에 대한 공인시험 자격을 획득했다.

국내에서 시험성적서를 받은 제품을 수출할 경우 국제적으로도 동등한 효과와 공신력을 가진다.

/차현정 기자

부음

▲ 윤웅섭(전 서울경찰청장·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향년 82세)씨 별세, 정순락씨 남편상, 윤성원(작가)·주원(화가)·

국노(해외 거주) 씨 부친상 = 26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 발인 29일 오전 6시30분. 02-2258-5946.

2024 'K-BPI'

롯데GRS

롯데리아 '골든브랜드' 인증
패스트푸드 부문 26년 연속 1위

롯데GRS의 버거 프랜차이즈 브랜드 롯데리아가 한국능률협회(KMAC)가 주관하는 '2024 한국 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조사에서 서비스업 패스트푸드부문에서 26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롯데리아는 브랜드파워 조사가 시작된 1999년부터 26년째 연속 1위를 수성해 이어 10년 이상 연속 1위 브랜드에 주어지는 '골든 브랜드' 인증을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 역시 브랜드 인지도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롯데리아는 브랜드 강화를 위해 '한국인의 입맛에 맞춘 버거' 창립 슬로건 아래 매년 다채로운 한국적 버거를 선보이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경동나비엔

환기청정기 3년 연속 1위

경동나비엔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제26차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에서 환기청정기 부문에서 3년 연속 1위로 선정됐다.

27일 경동나비엔에 따르면 경동나비엔 환기청정기는 브랜드 인지도와 충성도를 평가하는 조사 항목 전반에 걸쳐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 결과 지난 2022년 환기청정기 부문이 신설된 이래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경동나비엔의 환기청정기는 공기청정기의 한계를 극복하며 새로운 실내 공기질 관리 솔루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기청정기 기능으로 내부 공기를 정화하는 동시에, UV-LED를 탑재한 4단계의 청정 필터시스템으로 외부의 공기를 깨끗하게 걸러 실내로 공급하기 때문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젊은 추진력으로 사업 확장 미래지향적 푸드기업으로 거듭

플랜튜드 내부 전경

유통·식품업계 새 얼굴

4 이동훈 풀무원푸드앤컬처 대표

풀무원 영업이익 개선에 원동력
컨세션·위탁급식 사업 확장 주력
공항라운지, 휴게소 등 수주 성사
전년대비 매출 36.6% 끌어올려

올해 창사 40주년을 맞은 풀무원은 '3조 클럽'을 목전에 두고 있다. 풀무원은 올해 지속가능식품 개발은 물론, 국내에서는 위탁급식사업과 컨세션 사업 등에 힘을 실어 내실을 견고히 다질 방침이다.

풀무원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이 2조993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5.5% 증가한 수치이며, 같은 기간 영업 이익은 135.4% 증가한 619억원을 기록했다.

풀무원에 따르면 단체 급식, 외식, 컨세션 사업 등을 영위하는 계열사 풀무원푸드앤컬처와 해외 사업 성장이 영업 이익 개선의 원동력이 됐다.

풀무원푸드앤컬처는 1991년 위탁급

식 사업을 시작으로 컨세션 사업, 휴게소 사업, 전문 브랜드 레스토랑 사업 등 다양한 푸드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복합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부산 엘시티 전망대 '엑스 더 스카이'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풀무원은 푸드서비스 전문 주요 계열사인 풀무원푸드앤컬처 대표에 같은 회사 이동훈 DF(Designed Food) 사업 본부장을 선임했다.

이동훈 대표는 2002년 풀무원푸드앤컬처에 경력입사해 급식개발실장, 급식 사업본부장, DF사업 본부장을 맡아 강한 추진력과 탁월한 영업, 수주 능력을 발휘해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어려운 경영 상황을 타개하고 실적을 턱어라운드 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 취임 후 같은 해 12월 중순 풀무원푸드앤컬처는 인천공항라운지5개 운영사업권을 수주했다.

수주한 인천공항 라운지는 제1터미널 3개 사업장과 제2터미널 2개 사업장 총 5개이며, 신규 수주한 제2터미널 2개 사업장은 리모델링을 거쳐 오픈하고 있다.

이동훈 풀무원푸드앤컬처 대표는 컨

이동훈 대표 주요 약력

2024.1~	한국생물공학회 부회장
2023.7~	민간투자휴게시설협의회 부회장
2023.7~	풀무원푸드앤컬처 대표이사
2017.11~2023.6	풀무원푸드앤컬처 DF사업본부 본부장
2015.1~2017.10	풀무원푸드앤컬처 급식사업1본부 본부장
2002.3~2014.12	풀무원푸드앤컬처 급식부문 부산개발팀장, 지사장
1999.5~2002.3	삼성에버랜드 유통사업부 부산영업소 소장



푸드테크로 미래형 휴게공간 선봬 디지털기술 활용 언택트 서비스도

비건 레스토랑 '플랜튜드' 운영 식물성 기반 음식 신뢰도 높여

세션 사업 확장에 주력해왔다. 인천공항라운지 운영사업권, 공주휴게소(양방향) 운영사업권, 덕유산휴게소 주유소(양방향) 운영사업권 등 신규 수주를 성공적으로 성사시켰다. 지난해 컨세션(휴게소포함) 사업은 코로나 이전 매출을 회복해 3분기 누계 기준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36.6% 증가하고, 손익은 207.7% 올랐다.

현재 풀무원푸드앤컬처는 인천공항, 김포공항, 리조트 등 주요 채널 내 식음사업 등 34개의 컨세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 양평, 함안휴게소 등 전국 25개의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다.

풀무원 관계자는 "풀무원은 이동훈 대표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인물이라고 판단했다"며 "한국 최고의 푸드서비스 전문 기업을 지향하는 푸드앤컬처가 더욱 젊고 미래지향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풀무원푸드앤컬처는 운영하는 휴게소와 급식시설에 푸드테크를 도입해 운영 효율화에도 나서고 있다.

영동 고속도로 안산 복합 휴게소에 요리로봇과 디지털 무인배송 서비스를 도

입해 고객들에게 이색 경험을 제공하며 미래형 휴게 공간으로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볶음요리 전문 요리로봇 '로봇웍'을 도입해 전문 조리사 수준의 맛과 품질을 구현했다.

커피전문 드라이브스루(DT, Drive Thru) 및 로봇 바리스타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언택트 서비스도 선보이고 있다.

이동훈 풀무원푸드앤컬처 대표는 "휴게소 곳곳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고객들이 이곳에서 편안하고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풀무원의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 차별화의 중심에는 이동훈 풀무원푸드앤컬처 대표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풀무원은 이와 함께 대규모 급식장 수주 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다. 풀무원푸드앤컬처는 2021년부터 집중적으로 대형급식 사업장들을 공략해 계약을 따내면서 호실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비건 레스토랑 플랜튜드 운영에도 드라이브를 걸어 식물성 기반의 음식 알리기에도 적극 나선다.

플랜튜드는 식물성기반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장 내에 스마트 팜 존을 설치해 밭고랑에 수 있는 채소라는 점을 강조, 신뢰도를 높였다. 실제로 친환경 허브류 및 식용 화훼류 등 재배된 채소를 샐러드 메뉴용 식재료로 일부 사용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풀무원푸드앤컬처가 운영하고 있는 안산휴게소 전경.



비건 레스토랑 플랜튜드.

/풀무원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볼티모어 사고선박 놓고 "시스템 결함발견 vs 두차례 검사 통과" /사진 뉴시스
▲'트럼프 막아라' 오바마 등판... '바이든 측에 직접 전화해 조언'

▲인도 뭍바이, 베이징 제치고 아시아 최고 역만장자 도시
▲찾아지는 북러 고위급인사 왕래... 푸틴 방북으로 이어지나



▲中, 자국민 희생된 파키스탄 테러 강령 규탄... "양국협력은 계속"
▲엔·달러 환율 34년만에 최고... 추가 금리인상 기대 감소 속 약세 /사진 뉴시스



식품군 늘리고 부진팬 과감히 정리 대형마트 '선택과 집중' 니



Life

한미약품 '모녀' 손들어준 국민연금 L2



3代 함께... 재즈신동... 전문대 이색 입학생의 '새로운 도전'

"같은 대학에서 가족이 공부하니 능력 2배, 행복 2배입니다."

2024년 새 학기 전문대학에 독특한 사연의 이색 입학생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한 대학에 3대 가족이 동문이 된 사연을 비롯해 15세 '재즈 신동'의 조기입학, 50대 늦깎이 입학생 등 다양한 사연을 가진 신입생들이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27일 올해 입학한 전문대학 학생 중 이색적인 사연을 모아 공개했다.

◆"연주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서울예술대학교(이하 서울예대) 실용음악전공으로 입학한 광다경(15세) 씨는 4세 때 SBS '스타킹'에 출연했고 다양한 재즈 페스티벌과 공연에서 활동하며 연주 실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제12회 한국음악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신인상'을 수상하며 최연소 수상자 기록을 세웠다. 광다경 학생은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서울예술대학교 실용음악전공 광다경 씨.

“재즈신동, 서울예대 조기입학 K-컬처 산실... 재즈 대가 성장

을 검정고시로 마쳤다. 주변 권유로 외국 유학을 생각했으나, 서울예대 실용음악 전공 입학에 도전했다.

광다경 씨는 "K-컬처의 산실인 서울예대에서 열심히 연습하여 10년 뒤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동하는 재즈 분야의 대가로 성장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림성심대학교 전화자, 조미연, 정원민 씨.

“3대 함께 한림성심대 신입생 입학 가족과 의지하며 즐거운 대학생할

◆"공부하는 즐거움, 3대(代) 가족 함께" 지난 3월, 한림성심대학교(이하 한림성심대)에 3대(代)가 함께 24학번으로 입학했다. 3대 입학생은 바로 전화자(63세) 씨, 조미연(40세) 씨, 정원민(19세) 씨 가족이다.

올해 63세의 전화자 씨는 "현재 요양보



부산여자대학교 문헌정보과 이수연 씨.

“행복한 노년 준비 꿈꾸며 입학 책 소개하고 알리는 사서 목표

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더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이 대학 ACE인재융합학부에 진학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딸 조미연 씨는 "그동안 중단된 학업을 아쉬워하던 중, 어머니인 전 씨의 도전에 감명받아 함께 지원하기로 결심했다"고 얘기했다. 손녀인 정원민 씨는

"의지할 수 있는 동기가족이 있어 대학 생활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슬기로운 노년 생활" 새 꿈 위한 도전 부산여대 문헌정보과에 입학한 이수연(53세) 씨는 평소 책을 좋아하며 직장 생활을 하는 주부였다. 이 씨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행복한 노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입학 결심했다"고 진학 동기를 밝혔다. 이 씨는 많은 책들을 소개하고 알려주는 사서로 일하는 것이 목표이자 꿈"이라며 장래 희망을 말했다.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전문대학에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제2의 인생 도전을 하고 또 본인이 원하는 전공을 찾아 유턴 입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며 "전문대학은 인생 이모작 차원의 평생교육을 학습하기 위해 진학하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무교다동에 녹지 품은 업무시설 들어선다

서울시, 무교다동·세운지구 재개발 도심에 업무·근린생활시설 조성

서울시는 이달 26일 열린 제7차 건축위원회에서 '무교다동 제2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포함해 총 4건의 건축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곳은 ▲무교다동 제2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3-2, 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3-8, 9, 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6-3-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다.

'무교다동 제2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중구 을지로1가)'을 통해 지하철 1호선 시청역과 2호선 을지로입구



무교다동 제29지구 조감도. /서울시

역 사이에 지하 6층~지상 23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문화·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보행 공간 개선을 위해 기존 보도(을지로·무교로)의 지하 출입 시설을 대지 내부로 옮겼다. 또 개방형 녹지를 확보하고, 이와 연계된 저층부 공간을 계획해 가로공간을 활성화하는

계획안을 수립했다.

세운 3-2, 3구역에는 2개동 지하 9층~지상 36층, 세운 3-8, 9, 10구역에는 2개동 지하 9층~지상 39층, 세운 6-3-3구역에는 1개동 지하 8층~지상 32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조성된다.

건축위원회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다채로운 도시 경관을 창출하는 디자인 콘셉트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녹지가 부족한 도심의 현황을 고려해 건축물 계획 시 녹지율을 높일 것"이라며 "보행자 위주의 가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서울 늘봄학교, 5월부터 151개교로 확대

늘봄 서비스 참여기관 확대 추진

서울시교육청이 신청학교 38곳에 그쳤던 늘봄학교를 151개교로 늘려 5월부터 사업을 시작한다. 정규 수업 이후 오후 4시 하교하는 학생을 위해 1시간 추가 돌봄을 제공하고, 한글과 수학 과정을 개설해 기초학력 증진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 운영 시설로 순환버스를 태워 학생들을 보내는 등 늘봄 서비스 참여 기관 확대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서울형 늘봄학교 세부 추진 대책'을 발표하고, 관내 151개교에서 5월 시행을 목표로

로 다음 달 학교별 점검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돌봄과 배움이 공존하는 서울형 늘봄학교'라는 비전 아래 ▲교육과정 연계 최적화 ▲기존 방과후·돌봄 내실화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등 10대 과제를 선정해 서비스 질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늘봄학교 시행 시 문제로 지적돼 왔던 '부족한 공간'은 지자체 공간을 확보해 해결한다. 아울러 학교 내 늘봄학교 관련 공간을 확충하면서 교사연구실을 확충하고 기존 돌봄교실을 리모델링해 여건을 개선한다.

/이현진 기자

'봄꽃의 향연' 고양국제꽃박람회 확대 개최

일산호수공원에서 내달 26일 개막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전시회로 국제 인증하는 '2024고양국제꽃박람회'가 일산호수공원 일원에서 4월 26일부터 5월 12일까지 17일간 규모를 대폭 확장하여

개최된다.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이사장 이동환)는 꽃박람회 행사 시 고질적인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박람회 개최를 위한 대안과 혁신적 공간 활용을 위해 일산호수공원 북서쪽 공간인 노래하는 분수 광장과 장미원을

포함하여 행사 구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정흥교 대표이사는 "올해 행사장의 총면적은 240,000㎡이다. 이번 꽃박람회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전시복합산업(MICE) 관광시설의 연계 및 생태 정원, 장미원, 전통 정원, 노래하는 분수 등을 활용하여 공원의 정체성을 확립했다."고 말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오늘의 날씨

3월 28일(木) 음력: 2월 19일

수도권 날씨 9 ~ 14°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6:24 | 해질 / 18:51

연천 7/14, 동두천 8/14, 가평 5/14, 양평 8/14, 용인 9/13, 수원 9/13, 인천 9/13, 파주 7/13, 평택 8/14, 백령도 6/10, 서울 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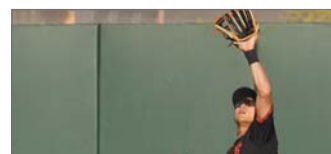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태국 원정 마친 대표팀, 국내파+김문환 오늘 귀국
▲손흥민, 장기 재계약 가능성...토틸, 팀 정책까지 바꾼다 /사진 뉴시스

▲MLB닷컴 본토 개막전 예상, 이정후 1번 vs 김하성 5번
▲올해도 이어진 봄 징크스 프로야구 kt, 조급증은 없다



▲베트남 축구 1승9패 팬들 "역시 감독 중요"
▲'오클랜드전 침묵' 이정후, 타율 0.343으로 시범경기 마무리 /사진 뉴시스

